

LAW SCHOOL

창
○

2022. OCT + NOV + DEC



04

SPECIAL INTERVIEW

“로스쿨 변시 합격률 높여야
다양한 전문가 키울수 있어”

제1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06

POWER INTERVIEW

쓰임 있는 연구자,
좋은 선생님 되고 싶어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김정연 교수

34

LAW FIRM TOUR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열의와
책임감을 갖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인재 필요해

법무법인 대륜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You need chaos in your soul to give birth to a dancing star.

프레드리히 니체
(1844-1900, Friedrich Nietzsche)

SPECIAL INTERVIEW 이상경 이사장	04
POWER INTERVIEW 김정연 교수	06
HOT ISSUE	10
HAPPY LAWSCHOOL 김병욱 학생	12
BOOK	15
REAL STORY 강태호 학생 / 유현지 학생 / 홍나현 학생	16
CONTEST 제9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24
STATISTICS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29
HOT SPOT 로스쿨생이 사랑한 맛집	30
EVENT 표지사진 공모	33
LAW FIRM TOUR 법무법인 대륜	34
LETTER FROM 최재원 변호사	40
SPECIAL REPORT ① 결원충원제도 설문조사	42
SPECIAL REPORT ② 변호사시험 CBT도입을 위한 공개 토론회 현장	47
HEALTH MENTORING 박원상 한의학박사	50
LAW TOON 법대가리	52
BOOK 김소리 변호사	54
EVENT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57
ART TALK TALK 손정화 큐레이터	58
AKLS NEWS	60
OUT CAMPUS	62
QUIZ	63

2022.
OCT + NOV + DEC



표지 이미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공모한
<로스쿨창 표지 공모전> 수상작

<리크루팅>
실무실습을 앞두고 여유와 긴장이 느껴지는
로스쿨 학생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이호규(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행인 이상경
홍보위원회 위원장 최윤철
위원 김명기, 김별다비, 송민경
편집 박소희
등록번호 2289-0262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02-752-2037)
디자인 ㈜그리고나무 (02-2268-2592)
인쇄 삼화인쇄(주)



이상경 이사장

“로스쿨 변시 합격률 높여야 다양한 전문가 키울수 있어”

제1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
상
경
이
사
장



학력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J.D., J.S.D.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헌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행정법 전공)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약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위원

헌법학회장 등 지낸
‘헌법전문가’

“장학제도 많아 돈없어도 입학가능
취약계층이 변호사 되는 길 넓어
지방로스쿨 쇠퇴 막으려면
현행 결원보충제도 유지해야”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로스쿨 강의가
시험 위주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이사장(사진)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에서 깊이 있는 법학 교육을 하기 위해선 경쟁시험 형태로 운영되는 변호사시험을 자격 시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1일 제11대 법전협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법전협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모여 제도와 운영에 관해 협의하는 단체다.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리트) 등을 주관하기도 한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출범 14년을 맞은 로스쿨 제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졌고,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구제·상담을 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최근 들어 로스쿨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이사장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2%였는데, 올해 합격률은 53.6%로 급락했다”며 “합격률을 토대로 로스쿨을 서열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입학과 교육 과정에서 발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 어려워진 점도 걱정거리다. 이 이사장은 “로마법, 법철학 등 법학 본연의 강좌는 물론 법인세법·특허법 등 현실에 필요한 강의도 변호사시험 합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줄줄이 폐강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무변촌’도 많다”며 “결원보충제를 편입학 제도로 대체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원보충제는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다음 해 입시 때 정원의 10%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원보충제 대신 편입을 허용하면 지방 로스쿨 공동화에 따라 법률 서비스 공급이 일부 지역에서 부족한 현상을 가сок할 수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변호사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변호사 직역을 확대해 사회 곳곳에 법률 서비스 수요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사회 곳곳에 법률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변호사들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한국경제신문(2022-10-21)

“학생들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제일 예쁘고, 교육자로서도 큰 보람을 느끼죠.”
 김정연 교수에게 교수로서의 보람에 대해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외교관, 변호사, 법학박사까지. 화려하고 다양한 이력을 가진 김 교수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과 학문으로서의 법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김정연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사(법학부)

약력
 김·장 법률사무소
 인천대학교
 외교통상부

“쓰임 있는 연구자,
 좋은 선생님 되고 싶어”

Q. 2006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서 3년간 근무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외무고시 합격 후 외교부 북미국 북미 2과, 아프리카중동국 중동과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미국의회를 담당하는 업무도 재밌었고, 이라크·레바논 등의 파병 부대와 중동각국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국가들을 경험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외교부에서 근무한 마지막 1년 동안은 제1차관 비서관으로 지냈는데, 국회와 언론 업무를 두루 경험할 수 있었다. 3년 내내 정말 재미있게 근무했고, 일생일대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Q.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계기는?

A. 당시 외교관 2~3년차에게 연수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알아보던 중 한국에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솔직히 말하면 법학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진학을 결심한 건 아니었다(웃음). 제도 도입 초기였기 때문에 관련 정보도 많이 없던 때라, 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진학했다. 아마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Q. 학부시절 법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로스쿨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로스쿨 생활은

어땠나?

A. 로스쿨 제도 시행 첫해에 입학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3년 내내 지배했다. 1기 합격률이 높았다는 건 회고적인 평가이지, 당시엔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이 나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었다. 그만큼 들쭉날쭉한 면이 있었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불안했었다. 다만, 로스쿨 제도가 비교적 잘 준비된 상태로 출범했고, 교수님들께서도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Q.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교수가 되었다. 법학 연구자의 길을 가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A. 지도 교수님의 핏에 빠진 거다(웃음). 로스쿨 재학 당시 지도 교수님이셨던 박준 교수님께서 졸업 논문을 좋게 보셨는지 출판을 독려하셨다. 그 논문이 서울대 법학지에 게재되고 수상까지 하게 되면서 내가 법학을 학문으로 하는 데에도 소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에 빠진 것이 시작이었다(웃음).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신입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년차 때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고,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해부터 인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Q.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에서

로스쿨 3년은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힘들어도 동기들과 잘 의지해가면서 어떻게든 버티기를 응원한다!
 또 변호사시험이 모든 여정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았으면 좋겠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노력한다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있나?

A. 지난 학기에는 상법, 회사법을 가르쳤고, 지금은 민사법통합연습과 상거래법 수업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변호사시험 준비반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혹시 정규 수업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특강을 통해 짚어주고,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면 상담도 해주고 있다.

Q. 로스쿨을 졸업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거리감을 덜 느낄 것 같은데, 학생들과의 소통은 잘 되는지 궁금하다.

A. 아무래도 교수진 중에서 젊은 편이기도 하고, 로스쿨을 졸업해서 그런지 스스로는 학생들을 가깝게 느낀다. 학생들 생각은 잘 모르겠다(웃음). 고민 상담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메일 문의가 많이 오고, 교수실에 직접 방문하는 학생들도 있다. 변호사시험 준비반을 담당하고 있어서 주로 혼내는 역할인데도(웃음), 많이들 찾아온다.

Q. 교수로서의 애로사항과 보람은?

A. 큰 애로사항은 없다. 나는 아직 내가 젊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학생들이랑 꽤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도이다.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학생들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제일 예쁘고, 교육자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

Q.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는 무엇이 있나?

A. 금융법과 회사법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증권불공정거래, 금융시장인프라, 회사지배구조, 자본시장 등에 관심이 많다. 지난 몇 년간 비영리법인 지배구조 문제를 연구해왔는데, 이 연구 분야에도 애정이 각별하다. 외교부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국제적인 이슈나 남북관계 등에도 어떻게든 연구의 발을 걸쳐보려고 애쓴다.

Q. 연구자의 길을 걷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달라.

A. 로스쿨 졸업 후 박사 과정을 밟으면 좋겠다. 물론 학위 논문을 쓴다고 해서 곧바로 교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박사학위를 받으면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된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과 다름없으니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본인의 이름으로 글을 쓰면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생길 것이다. 반드시 학위 과정을 거치라고 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계속 읽어볼 만한 글을 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더 자세한 방법은 따로 연락하면 알려주겠다(웃음).

Q.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과 덕목은 무엇인가?

A. 로스쿨을 졸업하면 분석력, 글쓰기 능력 등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게 된다. 연구자에게는 오히려 자기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또 끊임 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상상력이야말로 나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에게 필요한 자질이겠다. 이를 위해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을 많이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외국 자료들을 살펴보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Q. 로스쿨 재학생일 때와 교수가 된 지금의 로스쿨은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

A. 우선 좋아진 점으로는 많은 것들이 예측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 검사, 판사 등 어떤 꿈을 꾸든지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다. 그만큼 로스쿨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정착되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변호사시험의 압박은 크게 늘었다. 로스쿨의 입시부터 로스쿨 이후의 진로까지 많은 부분들이 예측 가능해졌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하락하고 있다.

Q.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생각은?

A.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문제가 법률시장의 구조, 기존 법률가들과의 이해관계 등 복합적이고 어려운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로스쿨에서는 자격시험화 해도 좋을 만큼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칠 테니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합격시켜주는 시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향후 계획은?

A. 나는 정말 참을성 없는 선생이고 실적에 허덕이는 연구자에 지나지 않는다(웃음). 퇴근할 때 반성하는데 24시간을 못 간다. 쓰임 있는 연구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Q. 끝으로 제자이자 후배인 로스쿨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한다.

A. 로스쿨 3년은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힘들어도 동기들과 잘 의지해가면서 어떻게든 버티기를 응원한다! 또 변호사시험이 모든 여정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았으면 좋겠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노력한다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전경

issue 01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 서비스 시행

법무부는 8월 29일(월)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조회하고 싶은 사람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 주소: moj.go.kr)



issue 04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성황리 개최

지난 8월 26일(금)~27일(토) 양일간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공동입학설명회에는 이들 동안 약 4,500명 가량의 수험생이 몰렸다. 8월 26일(금) 오전 11시에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법전문위원회 이사장이 개막 인사를 하였으며, 25개 법전문 원장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25개 법전문원의 개별 상담부스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의 부스가 마련되었다. 수험생들은 한 장소에서 25개 법전문 교수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입시에 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서 가장 눈에 띈 점은 각 학교마다 대기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두었다는 점이다. 전남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은행 대기번호 시스템을,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은 구글폼 사전접수 시스템을 제공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별도의 QR코드를 제작하여 상담 시작 10분 전에 사전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issue 02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한양대 로스쿨팀 우승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지난 8월 20일(토)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전국 로스쿨 학생 20팀(60명)이 예선에 참가해 8팀(24명)이 본선에 올랐으며, 본선과 결선에 오른 참가자들은 원고와 피고 모두를 변론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리를 구성해 변론을 펼쳤다. 그 결과 한양대학교 로스쿨 팀(최진솔, 송준영, 이수진)이 대회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issue 03

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서울대 로스쿨 '우리지금모행'팀 최종

8월 25일(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이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11개 로스쿨 팀 및 일반대학원의 28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팀(41명)이 참여해 행정심판 청구 사건 과제를 수행했다. 참가팀들은 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우승의 영예는 서울대 로스쿨 '우리지금모행'팀에게 돌아갔다.



수험생과 1:1 상담 중인 이동형 영남대학교 원장



자체 QR코드를 제작한 한양대학교 로스쿨



수험생과 1:1 상담 중인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원장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 되고 싶어

김병욱 학생은 명문대학에 진학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밖에서 보냈다. 여행을 다니고, 전국 곳곳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 그들의 수업을 들었다. 누군가에겐 일탈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에겐 꿈을 꾸고 미래를 생각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때 꾸었던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묵묵히 내딛는 중이다.

Q.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나?

A.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프로농구선수가 꿈이었다. 체고 진학을 앞둔 시기에 큰 무릎 부상을 입고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운동만 해왔던 탓인지 공부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3학년에 올라가기 직전 진로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처음 들어보는 학교를 추천하셨고 그때 정신이 들었다(웃음).

Q.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으니 단기간 공부한 것에 비해 성과가 좋았던 거 아닌가 (웃음).

A. 당시 오래 공부해도 큰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 아마도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 때문이었던 것 같다. 힘들긴 했지만 잠을 줄인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Q. 대학을 무려 10년 만에 졸업했던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

A. 학교 수업에 큰 부담을 느꼈다. 대학교 수업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고, 수업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1학년 3월 이후에는 거의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여행을 많이 다녔다. 또 전국 각지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의 학부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MT에도 따라갔다(웃음). 아는 분과 조그만 학원 사업을 하기도 했었다. 학교 출석을 제외하고는 폭넓은 경험을 한 것 같다.

Q. 학점이 처참했을 것 같은데.

A. 맞다(웃음). 1학년 때 총 2학점을 이수했고, 전 학년 통틀어서 학사경고 5회, F학점도 54학점에 달했다. 정규학기를 13학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김
병
욱
|
학
생

등록해서 수강신청 학점만 273학점이 되는 등 졸업까지의 과정이 매우 험난했다.

Q.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23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다. 원래는 4학년이어야 하는 나이였지만 워낙 수업을 안 들어서 당시에도 여전히 1학년이었는데(웃음), 같은 학교 1년 선배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장이 되었고, 졸업을 해야 하니까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Q. 로스쿨 진학도 그때 결심한 건가?

A. 사실 학점이 워낙 낮아서 로스쿨은 생각도 안 했었다. 그래서 처음엔 행정고시를 준비했었는데, 경찰관으로 근무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법을 알면 더 많은 사람

들을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로스쿨 입시를 준비했다. 학교를 다시 다니는 마음으로 학점을 채워나갔다. F학점이 워낙 많아서 대부분 재수강을 했는데, 다행히 학점을 3.75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Q. 로스쿨 진학 당시 돌봐야 할 가정이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겠다.

A. 학부 때 학교를 안 가는 동안 조그만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정도의 생활비는 마련해 두어, 결혼생활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일반적으로 로스쿨 학비가 3년간 5~6천만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도 로스쿨에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장학금 제도가 정말 탄탄하

게 마련되어 있었고,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큰 부담은 덜었다.

Q. 학비 이외의 생활비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을 텐데.

A. 모든 생활비를 다 로스쿨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또 학교에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 이 외에도 국가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진학을 망설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웃음).

Q. 로스쿨에서의 첫 학기 어떻게 보냈는지.

A. 1학년 1학기는 워밍업 단계여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았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

었는데, 1학기에 비해 과목이 많아져서 이제는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1학기 성적에도 만족했는데, 성적이 잘 나와서라기보다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웃음).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해서 운동을 하기도 했고, 스터디원들과 스터디를 짜서 공부도 했다.

Q. 법학은 답안지 작성부터 일반 시험과 다른데, 선행학습을 했나?

A. 입학 직전까지 계절학기 6학점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할 수가 없었다(웃음). 다만 학부 때 들었던 법학 관련 과목이 큰 도움이 됐다. 답안을 쓰는 건 공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알고 있는 지식을 현출하는 기술적인 작업이라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이 부분은 스터디원들과 답안을 돌려가면서 읽어본 다음에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식의 스티디로 점차 익숙해졌다.

Q. 로스쿨에서의 24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나?

A. 평일에는 수업을 듣고 열람실에서 자습을 하고, 저녁에는 주로 스터디를 하거나 최근에 등록한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하기도 한다. 주말에는 집에 가서 평일에 부족했던 공부를 하고, 아이와 놀아준다. 시험 기간처럼 조금 지칠 때 아이를 보면 힘이 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웃음).

Q. 졸업 후에 어떤 진로로 나아가고 싶은가. 또 최종적인 꿈은 무엇인지 소개해 달라.

A.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는 검사가 되고 싶다. 반드시 검사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직자

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최종적인 꿈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움직였는데,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좋지 않은 기억들을 털어버리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김병욱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꿀팁



낮은 학점, 다른 요소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가?

커뮤니티에 F학점이 3개만 되더라도 소명해야 된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고, 내 경우에도 학사경고를 비롯하여 (재수강으로 만회하기는 했지만) F학점이 많아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경험상 학점이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 바닥에 있던 학점을 끌어올려 봤으니, 오히려 잠재력으로 평가받지 않았을까?(웃음)



면접에서 법리적인 지식은 안 물어보았나?

서울시립대의 경우 법적인 지식을 묻지는 않았다. 면접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해보라는 문제가 나왔다. 총 2개의 질문이었는데, 그 두 문제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두 문제가 서로 다른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국가 권력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하나의 질문이었다. 그러므로 일관적인 기준을 갖고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15기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행학습을 하고 오면 좋겠지만 못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미리 체력을 길러두면 좋겠다. 또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마인드컨트롤을 잘하고 들어오면 좋겠다. 로스쿨엔 대부분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온 거니까 성과가 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관할 필요가 없다. 또 경쟁자는 다른 학교에 있고, 옆에 있는 동기들은 한 팀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거다.

2022년도 제2차(8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지난 8월에 시행된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별 문제와 해설이 담긴 해설집이 발간되었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작 대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 / 사례형에 한함
판매 가격	2022년도 제2차(8월 시행) - 단행본(10,000원) 택배비 5,000원 (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신청 방법	상시 주문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2022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은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 공식 해설서로,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출제 기관인 연구사업단에서 기획하여 매년 펴내는 도서이다. 이번에 출간한 제12판은 LEET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 문제 및 이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영역별 최신 5회분(2022~2018학년도)과 과거 6회분(2017~2012학년도)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출 판 사	에피스테메
발 행 일	2021년 11월 30일
판 매 가 격	18,000원 ~ 22,000원



봄날의 햇살 같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을 마치며



강태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생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생 드라마에는 정말 기구한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분이 정말 슬프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매, 학대, 가난, 장애, 죽음 등 어쩔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다 녹아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바뀌볼게. 내가 돈 많이 벌어볼게’라는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도 알기에 ‘아이고, 그냥 귀여운 우리 집 강아지 배나 굶으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는 합니다.

로스쿨 1학년 1학기가 끝나갈 즈음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평소에 공익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익변호사를 제가 할 수 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느끼며 배우고 싶었습니다.

여러 기관 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학부 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사회복지 정책과 법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



센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상담, 소송지원 및 대리,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공익입법활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 도에서 부당한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상담 및 소송을 해주고,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친권포기와 상속포기 등의 소송을 도와 주고 있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여를 했고, 동물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돕고, 단순히 권리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는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반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사회복지재단, 공감 인권법재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하여 연대 발표를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정신장애인으로 강제 입원과 장기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당사자들이 오셔서 연대 발표를 해주신 점이었습니다. 아직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기꺼이 나서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고 몽클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 대표 정신질환을 우리 국민 중 1/4이 죽을 때까지 한 번은 겪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무지해 가깝고, 편견만 많은 게 현실입니다.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으면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한, 정신장애인 관련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무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수습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쪽방촌 방문이었습니다. 종로 창신동에 있는 쪽방촌. 서울 중심부에 쪽방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사람이 늘기도 어려운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는 화장실의 욕조 크기만한 곳에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분들에게 32만 7천원이라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갔습니다. 그 작은 방



이, 화장실도 물을 직접 퍼서 내려야 하는 공동화장실의 환경에서 사는 데도 32만 7천원이라니. 그러면 적어도 집주인 분이 환경 개선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집주인분들이 환경 개선을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나름 대학생 때 도시락 배달도 하면서 노인분들의 어려운 삶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쪽방촌이라는 곳에서 2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것을 보고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고,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오전에는 <이름이 법이 될 때> 작가님의 북콘서트와 오후에는 실습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법이 될 때> 책을 미리 읽어봤는데, 추천사에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누구누구’법이 아니라 그 법에 담긴 사연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러한 법이 뒤늦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분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를 바뀌어나가는 것은, 사회 부조리에 대한 분노에서부터 시작한다는데,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습보고 발표를 들으며, 이렇게 멋진 선배 동료분들과 같은 공익 변호사를 꿈꾼다는 사실이 뿌듯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멋지고 밝아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따뜻함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따



뜻한 분들 중에서 미래의 대통령도 나오고 세계 100대 부자도 나오고 유명한 분도 나와서,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즐겁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제 보고발표회 때 선배님과 동료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주간의 실습으로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후배분들에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로스쿨을 지원했을 때의 ‘사회를 조금이나마 좋게 바꿔보겠다’는 초심을 찾을 수 있었고, 자신이 몰라서 공감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을 배우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구절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2주 동안 많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슬프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공익 변호사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대신 나서주시고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패소 전문가라고 부르며 자조하시기도 하지만, 그분들 덕분에 사회가 많이 변하고 따뜻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다는 사실도 알기에,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날이 좋아서 후기를 쓰겠다고 나섰는데, 원체 제가 무용한 것을 좋아하다보니 진지한 글은 잘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생은 모두 번시가 처음이라 어렵겠지만, 공익인권 프로그램 하셨던 분들 모두 초시 합격하시고, 원하는 진로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엔 봄날의 햇살 같은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되고 세계 100대 부자도 되고 유명 연예인도 되어서,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제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분들 모두, 편안함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로스쿨생의 소소한 일상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유현지입니다. 저는 지난 반년동안 유튜브 ‘현지진행형 Hyunji’를 통해 로스쿨에서의 일상을 공유해오고 있었는데요. <로스쿨 창>을 통해 이번에는 글로 로스쿨에서의 작은 일상들을 소개합니다.

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6개월차 유튜버로 주로 로스쿨 브이로그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지진행형’이라는 이름처럼 계속해서 흘러가는 일상을 차곡차곡 담아보고자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연이 닿아 촬영한 ‘일구구사: 서울대 졸업생들의 표준’, ‘연고티비: 로스쿨생이 말하는 로스쿨’에서도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로스쿨생들은 과연 어떤 시간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행복을 찾는지, 공부 외의 일상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공부가 로스쿨생 일상의 대부분이기는 하지만요.

1. 학교에서의 소소한 행복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긴 로스쿨생들이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간대는 아무래도 식사시간입니다. 학식도 자주 먹지만, 배달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학교는 옥상에 야외 테이블이 있어서 친구들과 종종 바람을 쐬면서 밥을 먹는 걸로도 여유를 찾습니다. 노을이 예쁜 날에는 테이블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을 때도 있어요. 최근에는 1층에도 야외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많은 원우들이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현지진행형>



유현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저는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지되었던 축제 및 행사들도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1학기에는 학교 축제와 별개로 법대 축제도 따로 열려서 이틀간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얼마 전에는 법대내 중앙 광장에서 바베큐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2학기는 저와 같은 1학년들에게 매우 바쁜 학기이고, 로3분들의 변호사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아 오래 놀지는 못했지만 친구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교내 점심식사

2. 학교 밖으로 나들이

학교에서 놀거리가 있더라도 날이 좋으면 밖으로 나갑니다.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보니 따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학교에서 바로 택시타고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로 노들섬이나 여의도같은 한강공원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서울대 로스쿨은 입학할 때 랜덤으로 10명 정도씩 조를 미리 짜주는데, 조 친구들과 대부분 친하게 지내서 그대로 엠티도 많이 갑니다. 저는 아직 멀리 여행을 가지는 못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별로 여행을 가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해요!

3. 방학 중의 로스쿨생

로스쿨생들은 방학 중에도 선행학습, 대회 준비, 인턴 등으로 바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닙니다. 저도 여름방학 때 괌, 스위스, 프랑스에 다녀왔고, 괌은 무려 로스쿨 동기들과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맨날 보는 얼굴들 방학 중에도 또 보나 싶지만, 해외에서 보는 행복한 얼굴은 또 다르니까요. 방학 중의 일정도 비슷해서 일정 맞추기도 (비교적) 편했어요. 개강이란 또 방학 중 여행의 기억으로 반 년을 버티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서울대 로스쿨 댄스동아리 <LUDENS>도 저의 방학 중 일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새로 생긴 동아리인데, 이번 방학 연습으로 지난 9월 3일 첫 공연이 열렸습니다. 밴드 동아리와의 연합 공연이라 공연진도, 관중도 많은 성공적인 공연이 되었어요. 많은 로스쿨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방학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며

로스쿨 3년간의 공부량이 정말 많기는 하지만, 그만큼 원우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친해지고, 그대로 놀러 다니기도 좋은 것 같아요. 동기들의 힘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조각조각 다양한 공부 외의 일상들을 채우면서 남은 로스쿨 생활을 보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일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도 보러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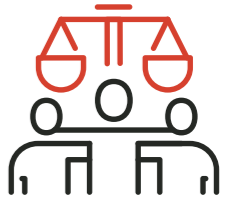


괌 여행 중에



서울대 로스쿨 댄스동아리 <LUDENS>

로스쿨 스터디의 종류와 활용법



홍나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1. 스터디란?

학부생 시절 대학교 커뮤니티 스터디 게시판에는 일명 '밥터디(같이 밥을 먹는 스터디)', '감사스터디(일상 생활에 감사하는 스터디)'등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함께'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개설되고 있었다. 이처럼 광의의 스터디는 혼자가 아닌 '같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규칙적으로' '함께함'으로써 스스로에게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특성은 로스쿨이라는 집단의 특성과 교묘하게 일치한다. 먼저, 하루가 수업시간과 자습시간으로 크게 이분되는 로스쿨 학생들의 입장에서 덩어리로 주어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같은 수험시간이 주어지지만 다른 결과를 내게 되는 이유는 같은 시간이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 본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서의 생활은 단체생활 그 자체이다. 특히 다시 대면수업이 활성화 되면서 로스쿨은 좋은 사람만 만나기에 적절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된 이상 오히려 원우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며 공부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2. 각종 스터디의 종류와 개선점

스터디는 정말로 만들기 나름이지만, 로스쿨 입학 후 한 번의 학기와 한 번의 방학을 겪은 지금, 4가지의 스터디를 경험했고, 4가지의 스터디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 줌터디(줌을 켜고 공부하는 스터디)를 제외한 세 가지의 스터디의 형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기상 스터디 (생활 스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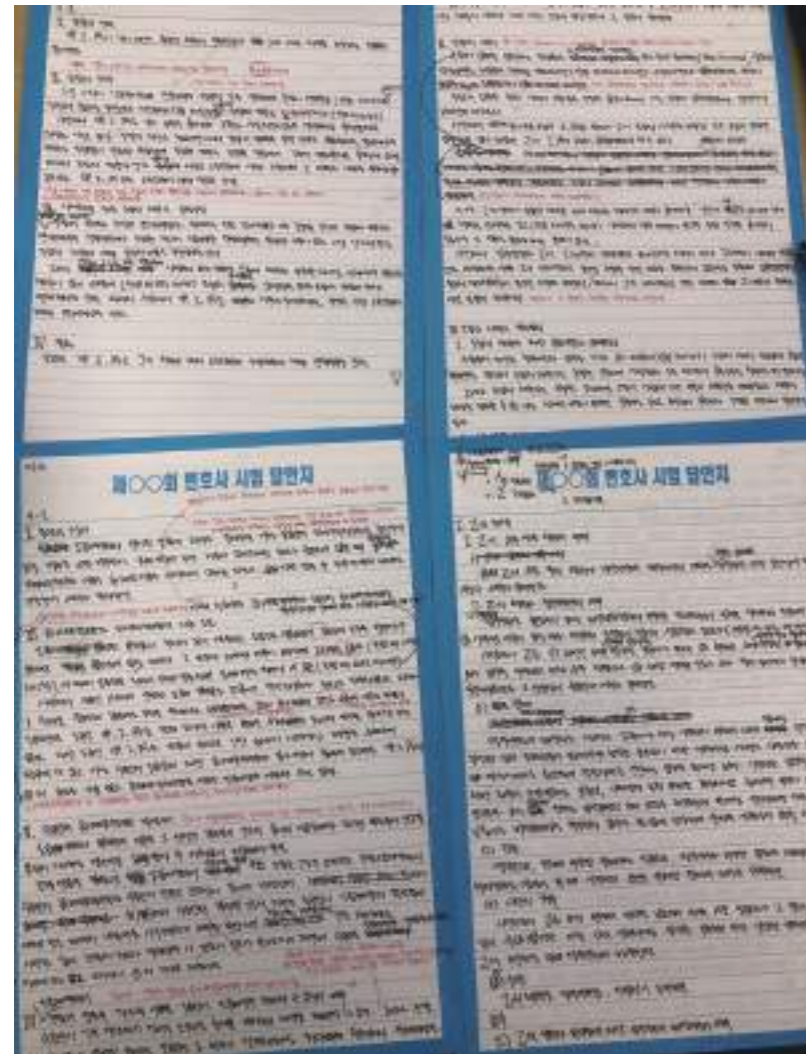
그 첫번째는 기상스터디이다. 어떤 집단에서든 나서서 장을 맡는 편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상스터디는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껴 발 벗고 나서서 만든 스터디

이다. 방학동안 굳어진 늦잠의 습관은 개강을 한다고 하루 아침에 나아질 리가 없었고 아침 공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학회에서 만난 언니와 함께 뜻이 맞는 원우들을 모집했고, 학기초에 걸맞게 서먹서먹한 관계를 유지하던 7명이 모였다.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가 일이었다. 모두의 '일찍'의 기준이 달랐고, 인증 방법도 다양했다. 그럼에도 모두가 수업 전에 적어도 1시간의 공부시간을 확보하자는 마음은 같았기에 시간은 곧 9시로 정해졌다. 그러나 공부 장소의 경우 집이 아닌 곳이어야만 하는 나와는 달리 집공(집에서 공부하기)을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촬영 시 화면에 시간이 나오는 사진 어플을 활용하여 공부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도 도입하였다.

한 학기가 지나 돌이켜보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투명했고, 또그래서 독단적이었다. 투명했던 이유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변명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프면 아프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했기에 누구나 납득할 만한 결석사유인지 스스로 검열해보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각종 선택의 상황에서 활발한 의견교류가 어려웠던 점은 스터디 장인 나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이어져 아쉬웠다.

사례 스터디



2) 사례 스터디

사례 스터디아말로 로스쿨 스터디의 꽃이 아닐까 싶다. 모여서 사례를 쓸 때의 현장감이 그렇고, 평소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그렇다. 로스쿨에 막 입학했을 당시 사례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나에게 멘토 선배는 '사례 스터디를 만들 때에는 함께 정답에 대해 토의해보거나 의견교류를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말부터 해주셨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의 장점은 자고로 다양한 의견의 교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이지 법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이었다. 분명히 정답이 있고, 이를 누가 더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현출하느냐에 대한 싸움인 사례영역에서 다양한 시각과 사견이 개입할 곳은 없었다.

우리의 사례 스터디도 따라서 의견을 교환하는 대신 시간을 강제하자는 목표 하에 꾸려졌다.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된 교재를 선정하여 그 주에 쓸 사례의 후보를 미리 정하고, 모여서는 그 중에 몇 개를 랜덤으로 골라 쓰는 식이었다. 주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례의 양이 천차만별이기에 이에 맞춰 사전에 학습시간과 강도를 조절해야 했고, 항상 스스로의 진도에 기민해야 했다. 그것 만으로도 충분하였다.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태도이다. 일단 스터디 시간만 어떻게든 버티고 나면 답안지에

뭐라도 적혀있기에, 사례 몇 개를 현출하였다는 데에서 오는 뿌듯함을 경계해야 한다. 스터디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는 분명히 있고, 보완하지 않고 써 보기만 한 채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3) 진도체크 스터디

방학이 시작하고 비로소 개설된 것이 진도체크 스터디였다. 방학을 맞아 모두가 풍부한 자습시간에 안도하면서도 단기 목표설정에 대한 조급함 역시 있었을 것이다. 진도체크 스터디는 각자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스터디인데, 그 주기는 정하기 나름이며 목표의 강도 역시 제한이 없다. 우리는 그 주기를 일주일로 정했고, 모두가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엑셀 시트로 공유문서를 만들었다. 다가오는 한 주의 준비로 어딘가 비장해지는 일요일 밤, 지난 주차 목표 달성 여부를 공유하며 이번 주차 목표를 새로 써 내려간다. 그러다 보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무언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아쉬웠던 부분을 꼽아보자면 연약한 양심에 너무 기댔다는 사실이다. 아무래도 증거를 제출하여(?) 인증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목표의 달성만을 위해 오히려 목표를 평이하게 낮추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서로의 목표가 공유되다 보니 알게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는 벌써 사례를 쓰고 있는데 나는 인강조차 완주하지 못했다면 나는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아진다.

3. 스터디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법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도 맞다. 로스쿨에서의 인연은 어떤 형태로든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스터디는 잘 활용하기만 하면 학업은 물론 로스쿨 생활에서의 적응과 그 이후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된다. 몇 개의 스터디를 경험하면서 스터디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공부라는 것이다. 친한 사람과의 스터디라서, 스터디를 하다가 친해져서 등 스터디가 친목 모임으로 전락하기 위한 이유는 많다. 따라서 스터디가 존속될 기간을 미리 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의 스터디는 종료하고 멤버의 구성이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또한 스터디의 팀플화를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스터디가 팀플과 다른 점은 '자발성'이 아닌가 싶다. 의욕이 넘치는 소수에 의해 견인되는 팀플은 좋은 결과물과 거리가 멀다. 참여부터 자발적인 것이 특징인 스터디의 경우 처음부터 벌금 수금, 출석 기록 등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무겁지 않게 주어진 책임감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돈 역시 예민한 문제이다. 벌금은 그 양부터 운용처까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도입되는 것이 좋다. 이때만큼은 스터디 장이 모두에게 발언을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기록은 투명하게 드라이브로 운영하거나 공용통장을 개설해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수이다. 벌금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스터디 종료 시 만나서 밥을 먹으며 회포를 풀기, 스터디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기, 종료 시 엔분의 일로 나누기 등이 있다. 스터디의 분위기와 목적에 따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상 스터디



특허·상표 소송의 절대 강자를 찾아라! 제9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지난 8월 말, 서류심사를 통과한 24개 로스쿨 팀(특허 16팀과 상표 8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9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가 진행됐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해야 하는 이번 대회에서 서울대·연세대 로스쿨 팀이 각 부문의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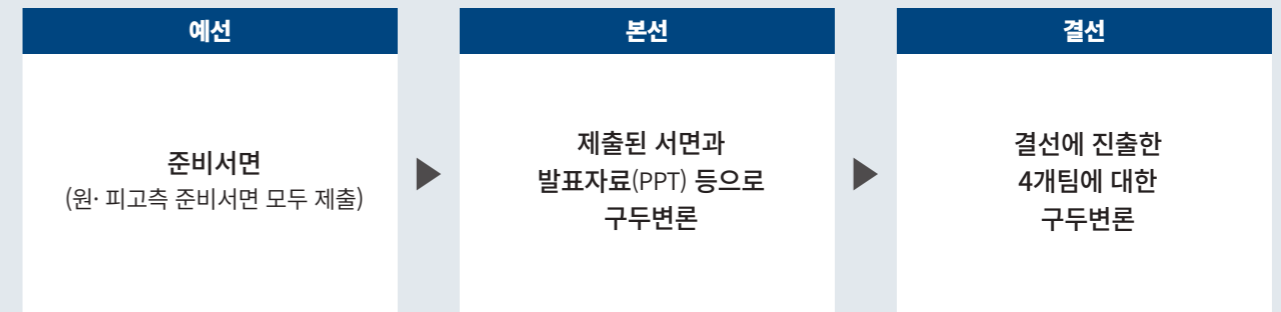
1. 대회 목적

로스쿨 재학생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함.

2. 참가 자격

대회 공고일 기준 로스쿨 재학 중인 학생 3인으로 팀을 이루어야 하고, 팀의 구성원은 동일 로스쿨 재학생이어야 함.
(단, 로스쿨별 참가팀 수 제한은 없음.)

3. 대회 흐름



4. 수상 내역

구분	특허 부문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	서울대(유창준, 김병렬, 이승현)	연세대(김성민, 고민선, 남수진)
특허청장상	서울대(박진원, 오재완, 탁수진)	경북대(조원찬, 배성준, 이상정)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인하대(김현섭, 이유진, 서호준)	연세대(장은은, 조성민, 김인성)
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장상	충남대(하누리, 심현정, 최다은)	서울대(정진, 송현정, 김한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고려대(권주원, 권용미, 전지원)	-
한국특허법학회장상	서울대(김현지, 김동현, 임은지)	-

※ 결선 진출팀(특허부문 6개팀, 상표·디자인부문 4개팀)에게는 특허법원 심화연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다양한 로스쿨에서 장려상과 입선을 수상하였다.

대회 수상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대회에 참가 중인 로스쿨 재학생들의 모습.



육소영 원장(충남대)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을 시상 중이다.



제9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우승팀

특허 부문 우승팀: 서울대(유창준, 김병렬, 이승현)

상표 · 디자인 부문 우승팀: 연세대(김성민, 고민선, 남수진)



특허법원장상 수상팀 단체사진

Q. 수상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서울대(특허, 유창준 팀장):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특허부문 1등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팀원들과 여름방학 내내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치열하게 준비했었는데, 목표했던 1등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 뿌듯합니다. 팀을 이끄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고 묵묵히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여준 팀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세대(상표): 처음 대회 참가를 마음먹고 호기롭게 시작하였지만, 그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하고, 한편으로 실력이나 준비한 것에 비해 과분한 상을 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

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실제 송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하는 경험은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를 통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주신 특허법원과 특허청 및 주최 측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Q. 팀원 소개, 그리고 세 명이 함께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울대(특허, 유창준 팀장): 팀장을 맡은 저는,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특허소송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팀원 김병렬 씨는 다양한 법학논문 투고 경험이 있으며, 법학적 논증이나 논리적인 글쓰기에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원 이승현 씨는 특허

분야 논문공모전에서 다수 시상한 이력이 있는 만큼 특허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며, 역시 법학적 논증에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팀원 구성에 있어서는 개인의 역량보다 협력을 중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특허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모두 무얼 하나 대충하는 법이 없으며 매사에 성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맞아 함께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상표): 저희 팀은 연세대 법전원 14기 김성민, 고민선, 남수진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99년생이라는 나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흥미 등의 다양한 공통분모로 입학 직후부터 친목을 다지는 사이였습니다. 법전원에서 맞이한 첫 번째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

각이 들던 차에, 제9회 특허변론소송대회 개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팀원 전원의 관심사와 부합하는 대회라 개최 소식을 접한 직후 참여하자는 의견이 모였고, 이에 특허변론소송대회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Q. 특허부문과 상표부문 중 수상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대(특허, 유창준 팀장): ‘특허’는 지식재산 소송을 대표하는 분야로서 분쟁의 규모와 빈도가 상표 분야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 부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가 단순히 ‘지식재산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해보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고, 향후 ‘지식재산 전문가’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지식재산 소송을 대표하는 ‘특허’ 분야를 선택하여 참가하였습니다.

연세대(상표): 특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친숙하지만, 상표와 상표법은 그 중요도에 비해 거의 알지 못한다는 점이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 소비자로서 특허보다는 상표에 관한 문제를 접할 일이 많음에도 상표법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왕 새로운 법을 공부하고자 마음먹었으니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상표법을 그 대상으로 삼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허부문보다 상표부문이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부문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막 로스쿨 첫 학기를 마친 1학년으로서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학업과 실무수습으로 인해 마냥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출문제와 우수변론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허부문의 경우 법리 외에 발명품의 작동 원리를 익혀야 하고, 매년 출제되는 기술의 분야가 다양하여 변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상표부문은 법리를 익힌 후 주어진 사례와 관련 근거를 조사하는 정도이므로 부담이 적고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

다. 학교 선배님께서 작년 상표부문에서 큰 상을 받아 대회 후기를 공유해주셨다는 점도 상표부문 선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Q. 이번 대회 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았나요?

서울대(특허, 김병렬 팀원): 이번 특허부문에서는 휴대폰을 거치하여 무선충전기능을 제공하는 트레이를 구비한 차량용 컵홀더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문제되었습니다.

권리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다양한 구성을 선행기술로부터 자유롭게 실시하기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침해가 문제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특허발명 구성 중 홀더부에 관한 청구항이 폭넓게 해석되는데 이를 피하여 비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특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상표): 이번 대회는 특허심판원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원고가 등록된 상표는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속 짱구가 입는 잠옷의 디자인과 같은 도형상표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도형만이 결합한 상표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세모, 네모 등 도형이 결합한 표장을 잠옷과 래쉬가드에 사용해 왔고, 당해 표장이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표장이 당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에서 피고의 표장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도형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디자인으로 흔하게 사용되기에, 특히 주지·저명성 등이 인정되어 피고의 표장을 상표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피고의 표장이 디자인에 불과한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표장이 유사한지, 원

고 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 표장의 사용상품이 유사한지 그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증되어야 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일반적인 상표와 달리 도형이 패턴처럼 결합한 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히 어려웠습니다. 관련 판례가 많지 않기에 가능한 비슷한 판례를 많이 찾고, 이로부터 체계적인 논리를 만들어어나가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Q.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변론했나요?

서울대(특허, 김병렬 팀원): 예전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기술분야이고, 복수의 선행발명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성 각각에 대한 세부적 기술적, 공학적 검토보다는 문제된 기술분야에서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 및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의 공지 여부를 논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허 부문 우승팀 - 서울대





상표·디자인 부문 우승팀 - 연세대

원고의 입장에서는 특허발명의 트레이 부분과 관련해 선행기술과 차별화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재구성 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특허발명의 고유한 과제해결원리가 없음을 보이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발명의 실질적 기술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여 변론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논리 전개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상표): 다루어야 할 쟁점은 많은 반면, 변론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에 쟁점 사이 분량 분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되는 쟁점은 오랜 시간을 들여 근거와 판례를 소개했지만, 중요하지 않은 쟁점은 짧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입장에서 몇몇 쟁점은 소극적 권리확인심판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라는 확고한 판례가 있었기에 이러한 쟁점은 가능한 간략하고 빠르게 다루었습니다.

Q. 단계별(서면심사와 본선 경연) 준비 팀을 소개해주세요.

서울대(특허, 이승현 팀원): 대회준비는 크게 서면을 작성하는 단계와 변론을 준비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서면 작성 단계에서는, 공지된 과제와 선행문헌 등 자료를 모두 숙지한 뒤 원고와 피고 각 측의 주장을 개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본선에서 원피고

중 어떤 입장으로 변론에 참여하게 될지 모르니, 한 측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서면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서면의 일관성을 위해 자유 실시기술의 항변과 문언 침해, 균등 침해 주장 중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변론 준비 단계에서는 발표 자료를 제작하

고 변론 및 질답에 대비합니다. 1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주변론의 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실익이 큰 지점을 그렇지 않은 지점에 비해 강조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변론 후 진행되는 질답 시간에는 서면 또는 주변론에서 논리적으로 취약했거나 불명료했던 지점들에 대한 질문을 받기 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세대(상표): 먼저 서면심사의 경우 각각의 쟁점에 대해 작성하기에 앞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의 경우 문제에서 쟁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그 쟁점을 그대로 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다른 쟁점이 없을지 함께 탐색하였고,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주장해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서면에 포함하였습니다. 본선에서 심사를 맡으신 판사님께서도 이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본선 경연의 경우, 판사님의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선에서 다른 팀의 변론을 들으며, 실력이 다 비슷하고 모두 열심히 준비해 오기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순발력을 요하는 질의응

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를 잘 대비해야 합니다. 비중 있게 다루지는 판례에 대해, 판시 원문을 정독하며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무엇이 문제 된 사안인지, 왜 그러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고 있는 것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제10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특허, 이승현 팀원): 제9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막연했던 관심이 구체화되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 소송이 어떻게 다루지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전개되는 과정 안에서 소송대리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론상 접했던 법리들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해보면서 이론의 '적용'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생소한 단어와 절차를 다루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에게 자양분이 될 좋은 기회임을 떠올리시며 대회 당일까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연세대(상표):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는 사실관계 파악부터 서면 작성, 변론 등 실제 지적재산 관련 송무 사건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그대로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참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좋은 기회이니만큼 꼭 참가하셔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회 참여를 마음먹으셨다면, 꼭 완주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도 상표법에 관한 배경 지식이 전문한 상태에서 대회를 준비하며 밤도 많이 새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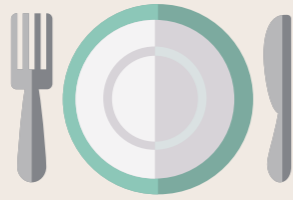
접수기간 : 2022. 9. 26.(월), 09:00 ~ 30.(금), 18:00

대학명	모 집 정 원							지 원 현 황						경 쟁 룰						전년도 경쟁률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7	3	40	40				223	20	243	243				6.03	6.67	6.08	6.08	5.70
건국대	37	3	40				40	128	11	139				139	3.46	3.67	3.48				3.48	3.63
경북대	55	5	60	56	4	60	120	297	27	324	300	22	322	646	5.40	5.40	5.40	5.36	5.50	5.37	5.38	5.14
경희대	55	5	60				60	319	27	346				346	5.80	5.40	5.77				5.77	6.72
고려대				111	9	120	120				314	28	342	342				2.83	3.11	2.85	2.85	3.02
동아대	37	3	40	37	3	40	80	385	31	416	407	30	437	853	10.41	10.33	10.40	11.00	10.00	10.93	10.66	10.13
부산대	55	5	60	56	4	60	120	205	25	230	215	21	236	466	3.73	5.00	3.83	3.84	5.25	3.93	3.88	4.10
서강대	18	2	20	19	1	20	40	126	11	137	174	4	178	315	7.00	5.50	6.85	9.16	4.00	8.90	7.88	8.63
서울대	139	11	150				150	374	40	414				414	2.69	3.64	2.76				2.76	3.07
서울시립대	45	5	50				50	191	37	228				228	4.24	7.40	4.56				4.56	3.98
성균관대				111	9	120	120				259	22	281	281				2.33	2.44	2.34	2.34	2.86
아주대	23	2	25	23	2	25	50	141	17	158	157	17	174	332	6.13	8.50	6.32	6.83	8.50	6.96	6.64	6.42
연세대				111	9	120	120				267	41	308	308				2.41	4.56	2.57	2.57	2.65
영남대	32	3	35	33	2	35	70	347	45	392	369	24	393	785	10.84	15.00	11.20	11.18	12.00	11.23	11.21	10.54
원광대	30		30	25	5	30	60	709		709	552	74	626	1,335	23.63		23.63	22.08	14.80	20.87	22.25	18.72
이화여대				92	8	100	100				277	30	307	307				3.01	3.75	3.07	3.07	3.24
인하대	21	4	25	25		25	50	122	21	143	145		145	288	5.81	5.25	5.72	5.80		5.80	5.76	6.90
전남대	51	9	60	60		60	120	192	36	228	242		242	470	3.76	4.00	3.80	4.03		4.03	3.92	4.19
전북대	37		37	37	6	43	80	214		214	251	37	288	502	5.78		5.78	6.78	6.17	6.70	6.28	5.75
제주대	18	2	20	19	1	20	40	144	13	157	163	7	170	327	8.00	6.50	7.85	8.58	7.00	8.50	8.18	6.53
중앙대	46	4	50				50	330	21	351				351	7.17	5.25	7.02				7.02	7.60
충남대	50		50	43	7	50	100	269		269	220	29	249	518	5.38		5.38	5.12	4.14	4.98	5.18	4.76
충북대	40		40	25	5	30	70	179		179	90	18	108	287	4.48		4.48	3.60	3.60	3.60	4.10	4.74
한국외대	46	4	50				50	164	18	182				182	3.57	4.50	3.64				3.64	5.16
한양대				93	7	100	100				203	19	222	222				2.18	2.71	2.22	2.22	2.40
합 계	835	67	902	1,013	85	1,098	2,000	4,836	380	5,216	4,828	443	5,271	10,487	5.79	5.67	5.78	4.77	5.21	4.80	5.24	5.24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금강산도 식후경 로스쿨생이 사랑한 맛집

하루 24시간을
25시간처럼 사용하는
로스쿨 학생들은 어디에서
끼니를 때울까?
맛은 기본이고,
저렴한 가격에 배까지
채워주는 최애 맛집을
재학생들에게
소개받았다.



성대생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떡볶이 러버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전통의 쌀떡볶이 강호. 무려 3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명륜의 터줏대감입니다. 정문에서 도보 2분 정도의 거리로 가까운데다 24시간 영업하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기 전 들러서 야식으로 포장해가는 원우들이 많아요. 메뉴는 떡볶이, 김밥, 순대, 어묵으로 단출하지만 모든 메뉴가 골고루 인기가 있습니다. 그중 최고는 간판 메뉴인 떡볶이! 밀떡파도 인정하는 자타공인 질리지 않는 쌀떡볶이 맛집입니다. 한 번 맛보면 계속 생각나게 될 마성의 떡볶이 맛집, 나누미떡볶이예요.

주소 : 서울 종로구 명륜2가 225

나누미떡볶이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봄봄기사식당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오랜 자취생활로 집밥이 그리울땐? 시립대 정문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100미터 근방에 위치한 봄봄기사식당은 시립대 로스쿨생들의 단골 맛집입니다. 단돈 9,000원에 정갈한 한식을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제육볶음, 돈가스, 김치찌개, 고등어 자반구이 등이 인기입니다. 라면 사리를 무료로 리필할 수 있어 배가 많이 고프는 경우 김치찌개에 사리를 두 개 넣어서 먹어도 된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는 돌솥밥에 송송을 해 먹을 수도 있어 든든한 한 끼를 먹고 싶을 때마다 찾는 곳입니다.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28



USOBA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이대역 3번 출구로 나오면
채 3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
운 거리에 있는 '유소바' 입
니다. 시설도 굉장히 깨끗
하고 자리 배치가 잘 되어
있어 혼밥도 가능하고 여
럿이 와서 가볍게 먹고 가
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학부생들에게도 널리 알려



져 있고, 인근 지역에서도 맛집으로 유명해서 웨이팅이 간혹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유일한 단점입니다. 제일 유명한 메뉴
는 마구로 정식으로, 15,000원인데 단품으로도 주문이 가능하
고 정식으로 주문할 경우 밥이나 소바도 리필이 되어 양이 많
으신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소바는 온소바와 냉소바
선택도 가능해서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
주 먹고 좋아하는 메뉴는 덴푸라 소바입니다. 튀김이 엄청 바
삭바삭하고 맛있는데, 소바랑도 매우 잘 어울려 별미입니다.
온소바는 겨울에 먹기 적합하고 냉소바는 여름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잘 먹을 수 있어요. 깔끔하고 간단
하게 정말 맛있는 일식을 즐기고 싶다 할 때에는 이대역 '유소
바'를 매우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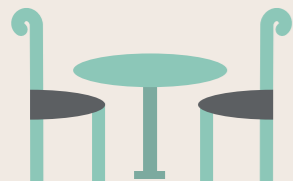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4

대풍수 전남대학교 로스쿨



전남대에 놀러 오면 (비록 서울에서 오더라도!) 무
조건 가장 처음으로 데려가는 자신있는 중식당입
니다. 저도 실제로 신입생 때 선배가 처음으로 데
리고 가주신 집이기도 하구요! 여기서는 찻란돼지
고기볶음과 우육면을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찻란
돼지고기볶음에서는 이국적인 향이 나긴 하는데
양꼬치의 양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극호일 겁
니다! 그리고 양도 많고 메뉴도 하나같이 다 맛있
어서 셋이서 두 개 시켜도 배부르기 쉽가능! 하지
만 다 맛있어 보여서 두 개만 시키기 쉽지 않을 거
예요. 보통 마라탕이랑 그냥 요리 둘 다 맛있기는
어려워서 둘 중 하나에 집중하는데 여긴 심지어 마
라탕도 맛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끝나고 대풍수 가
자고 호감 표시하는 학우님도 봤습니다요~!

주소 : 광주 북구 설죽로202번길 71-1



잠마담
경북대학교 로스쿨



경북대학교 주변에서 가장 맛있는 중식집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중식집이지만 역대급 통통한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꺾바로우와 망고크림새우라는 특별한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돌짬뽕도 유명한 메뉴 중 하나인데 차돌박이가 아주 듬뿍 들어가 있어서 면 한 입-고기 한 입의 핑퐁이 가능하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매달 쿠폰도 나눠주며, 학생들의 피드백도 경청하는 오픈 마인드의 사장님 덕분에 매번 칭걸하고 위생적인 식당에서 중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소 : 대구 북구 경대로5길 34



섬세한 카츠
동아대학교 로스쿨

동아대학교 로스쿨에서 2분 거리인 섬세한 카츠는 개강 후에 동아대 재학생과 로스쿨생들이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 있는 식당입니다.(인근에서 웨이팅 명단을 적어야 하는 유일한 집입니다!) 로스카츠, 히레카츠, 특로스카츠가 주력메뉴인데, 선분홍빛의 부드러운 살코기가 포인트입니다! 특히 히레(안심)카츠는 100% 살코기라 돈가스를 먹는데도 건강식을 먹는 듯하고요. 워낙 튀김옷이 얇아 느끼하지 않은데, 소금 와사비 특제소스 덕에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카레의 경우 돈가스를 찍먹하기보다, 밥에 비벼 먹을 때 더욱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밥이 부족하진 않은지, 반찬이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식당 내부도 청결합니다. 가격은 로스 9,000원, 히레 10,000원, 특로스 12,000원으로 비싸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학교 인근에서 이 정도 맛의 돈가스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주소 : 부산 서구 보수대로 103-1



포지 사진 공모



- **응모 자격:**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교직원(교수/직원)
- **공모 주제:** <로스쿨 창> 겨울호(1월 발간) 표지
 - 로스쿨과 관련된 사람, 캠퍼스, 풍경, 건물, 이벤트 등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음.
 - 다양한 로스쿨 일상을 담은 캠퍼스 라이프 사진
- **마감 기한:** 2022. 12. 18.(일) 도착분까지 마감
- **제출 방법:** 이메일(showe@leet.or.kr)
 -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함께 제출 (신청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내 게시)
 - 제출 파일은 '제출자의 성명_작품명'으로 작성
- **출품 규격**
 - 파일 크기: 5MB(3200×2200픽셀) 이상
 - 파일확장자: jpg, jpeg, png, gif 형태의 디지털 사진
- **선정작 시상:** 30만 원(1작품)
- **문의처:** <로스쿨 창> 담당자(02-752-2037, showe@leet.or.kr)
- **결과 발표:** 2023년 1월 초순 개별 연락
- **유의 사항**
 - 출품 사진은 응모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모든 응모작품은 제3자의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출품자에게 있음.
 - 선정작의 저작권 전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영구 귀속되며, 이후 필요에 따라 2차 저작물 작성 및 편집 저작물 제작 권리, 제3자 제공, 인터넷 서비스 등 포괄적 이용 권한을 가짐.
 - 세부 심사기준 및 과정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되지 않은 모든 제출 자료는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 예정임.



법무법인 대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열의와 책임감을 갖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인재 필요해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분사무소를 내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로펌을 뜻한다. 대표 네트워크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24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설립 이후 무서운 기세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부산 본사 정찬우 대표변호사를 만나 대륜의 채용 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신입 변호사 채용 서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많은 법인 중에 왜 대륜에 입사하고 싶은지 잘 어필하는 지원자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출신 학부나 로스쿨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며, 변호사시험 성적 또한 참고자료일 뿐 필수 제출 항목은 아닙니다. 업무에 대한 열의와 입사 의지를 잘 표현한 분들에게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면접에서의 평가 기준도 궁금합니다.

정량적인 지표보다는 변호사로서의 성장 의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갓 졸업한 수습 변호사들의 경우 그 역량과 실력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에 대한 열의와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의 팁을 주신다면.

우선 자기소개서에는 지원하는 로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륜에 입사하고 싶은 목적이 뚜렷하고, 회사에 대한 사전 조사가 반영되어 있으면 그만큼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줄줄이 자신의 이야기만 적는 것보다는, 면접관으로 하여금 이 사람과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면접에서는 단답식 대답은 피해야 합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네' 또는 '아니오'라고만 대답한다면 면접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대륜의 강점을 언급하고, 자신도 성장하면서 회사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내용을 답변 속에 녹인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웃음).

Q. 로스쿨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은 없나요?

재학생 대상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이므로, 조만간 인턴십 과정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인턴십은 서면을 작성해보는 등 실제 사건을 경험해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Q. 대륜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책임감이 있는 분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송사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열의와 책임감을 갖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승소로 이끌어내는 변호사가 가장 좋겠지만, 패소했을 때에도 의뢰인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책임감을 갖고 사건처리와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를 원합니다.

Q.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지에 24개의 사무소가 있는데요. 신입 변호사가 지역 사무소로 배정될 수도 있는지요?

A. 채용공고를 할 때부터 지역별로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는 사무소는 서울, 부산, 광주 등 큰 도시에 위치한 사무소이지만, 공고(신입/경력)는 각 지역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취업정보 게시판에 채용공고가 올라갑니다.

Q. 입사 이후 신입 변호사의 팀 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대륜은 민사, 형사, 가사, 이혼, 행정 등 다



양한 분야의 소송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신입 변호사들에게 어떤 분야의 사건이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특정 분야에만 한정하는 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는 대륜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상담 단계부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력 변호사와 매칭하여 단기간에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원하는 기간 동안 분야에 관계없이 최대한 다양한 사건을 접해볼 수 있는 것이 대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사건 배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본사에서 전국 사무소 변호사들에게 직접 사건을 배당합니다. 사건을 배당할 때에는 재판 관할과 변호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사건을 배당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뢰인이 특정 변호사에게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변호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배당 요청을 하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Q. 대륜만의 특별한 정책과 문화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륜은 변호사들 사이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상호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물론 변호사의 연차와 경력을 존중하고 예우하지만, 사건을 처리하거나 의사결정에 있어

서는 수평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최대한 자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중요시하여 성과에 따라 승진과 급여 인상 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성장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신입 변호사의 급여 및 복지제도를 소개해주세요.

신입 변호사 기준 기본급으로만 대략 세전 7,800만 원을 연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가 다양하게 있어 연봉 1억 원을 받는 신입 변호사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기존까지는 수습 변호사들에게 월 300만 원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었는데, 월 4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수습이 종료된 이후 정식 계약을 하면 현재는 세전 월 650만 원 수준입니다만, 추후 기본급을 9천만 원~1억 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법정 기준보다 넉넉한 2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또는 자율근무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대륜에 입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륜만큼 다양한 사건을 접해볼 수 있는 로펌은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일부 네트워크 로펌들은 형사사건의 비중이 높는데, 대륜은 민사사건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대륜에서는 변호사로서 기초가 되는 민사사건의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신입 변호사들의 업무 적응을 위해 대륜의 사건 수행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니, 대륜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웃음).

Q.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A. 변호사로서 송무 업무도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창업자인 심재국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대륜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본사에서 지역 사무소를 직영하는 구조인데요. 지역 사무소도 본사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주로 지역 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 개선점을 듣고 변호사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본사를 포함하여 전국 사무소 신입/경력 변호사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로스쿨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A.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건 작은 언덕 하나를 넘은 것일 뿐, 변호사로서의 산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웃음). 그 산맥을 오르려면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책을 보고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리란지, 판례에는 나오지 않는 재판 노하우를 끊임 없이 익혀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배 변호사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고 개인의 성장을 중요시하는 대륜과 같은 로펌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인터뷰이. 정찬우
법무법인 대륜
부산(본사) 대표변호사

의뢰인과의 소통이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과 덕목은 무엇일까.

정답은 없지만 옳은 방향은 있다.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사)
박용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능력을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덕목으로 꼽았다.

Q. 변호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A. 저는 변호사에게 소통만큼 중요한 덕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뢰인은 어떤 내용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에서 법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잘 추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이야기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변호사는 고고학자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다루는 일은 모두 과거에 발생한 일입니다. 변호사는 과거에 발생한 여러 개의 단편적인 일들을 모아서 사건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과거의 편린 중 어떤 조각들을 골라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재구성을 할 것인가를 변호사는 결정해야 합니다. 법리를 잘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많이 발굴해내는 것도 변호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증거를 많이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소통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Q.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나요?

A.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므로 다재다능해야 합니다. 때로는 의사와 같은 역할도 하고 때로는 무당과도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도 있고 심한 분쟁이 생겨서 오

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당했는데도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나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법적 해결책이 있는지 제시해줌으로써 그 마음의 상처를 돌봐야 합니다. 의뢰인의 상처를 살펴보고 치료 또는 처방을 한다는 점에서 의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속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무당과도 같습니다. 변호사는 지는 사건도 있고 이기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의 승률은 50%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왜 패소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의뢰인이 패소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할 때 왜 법리적으로 패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곁에서 설명해 주고 의뢰인의 마음속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변호사는 승소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오히려 패소했다고 해도 그 사건의 의뢰인이 저를 다시 찾아오게끔 만드는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Q. 법무법인 대륜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 대륜의 가장 큰 강점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대륜은 단기간에 크게 성장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경영진의 진취적인 도전과 함께 경영진이 젊은 변호사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왔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변호사인 제 사무실 방은 신입 변호사의 사무실 방 바로 옆에 배치되어 있고, 사건도 같이 맡으면서 신입 변호사들과도 많이 소통하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륜의 경영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젊은 변호사가 많이 있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에 따른 상하관계나 권위적인 의사소통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화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가 여전히 기성세대를 이루고 있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을 만들고 있는 좋은 법무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의뢰인의 이익과 사회 정의가 충돌하는 딜레마 속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A. 저는 변호사에게 실제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 진실을 밝힐 의무는 소극적 의무이지, 적극적 의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판이란 결국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거 수집을 하고 이에 대한 법리를 구성하면 상대 측 변호사도 이에 맞춰서 증거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사법부도 이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 증거와 주장을 살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거짓된 주장을 하지 않는 선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면, 이에 상대 측도 맞추어 대응하기 때문에 거짓이 있다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혹시 법조계의 인생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A.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아야 선택을 할 때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있어야 의지를 가지고 그 선택에 임하게 됩니다. 단순히 학업과 관련된 경험이 아니라, 카페 알바도 좋고 건설 현장에서의 일도 좋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길을 걷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터뷰어. 김시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인터뷰어. 박용두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2012년 도입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강의교육 과정, 모의기록 연습, 현장연수의 세 가지를 2개월씩 이수하도록 한다. 특히 2022년부터는 수강생들의 강의평가가 좋은 모의기록 연습 및 분반토의 과정을 2개월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변호사 최재원 법률사무소

강의교육 과정에서의 강의형 강좌를 지양하고 실무형 강좌로 개선 필요: 5-6월 실시

강의교육은 5-6월 6주간 44강좌를 편성하고, 최소 이수조건을 40학점으로 하고 있다. 헌법소송실무, 계약실무, 가사소송, 형사변호실무, 노동소송, 행정쟁송실무 등 실무과목 중심으로 검사, 판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강의방식으로 진행한다. 다수 인원이 수강하는 문제로 강의방식의 교육만 가능한 것이다. 강의교육은 줄이고, 현장성 있는 모의기록 연습과 현장연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모의기록 연습 및 분반토의 과정의 확대 개선 필요: 7-8월 실시

모의기록 연습 및 분반토의 과정은 통상 7-8월에 6주간 실시되고, 연수변호사를 10명에서 15명으로 분반하여 토론식 강좌가 진행된다. 강사진은 조제된 실무기록을 활용하여, 기록 검토, 법문서 작성, 토론, 강평, 주요쟁점 토론, 개별 첨삭지도를 시행한다.

실제 변호사 실무에서는 교육기관에서의 법리적용 보다는 사실인정, 증거의 신빙성,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이 더 중요하다.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법리를 주장할 경우 흔히 듣게 되는 재판장의 지적은, 법리는 재판장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구두변론과정에서는 법리 주장보다는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정과 관련한 변론이 더 중요하게 된다.

특히 증인신문이나 당사자본인 신문 과정에서는 살아있는 사건기록에서 쟁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의뢰인의 상담과정과 의뢰인 등으로부터 입수한 증거자료에서 사건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골라내고 유리한 사실을 재판장에게 강조해야 한다. 불리한 사실이나 상대방 대리인의 사실관계 항변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중요시 된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법리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형사법 시험에서는 증거능력을 문제 삼고, 친고죄 여부, 전

문법칙상 정해진 답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는 대부분 증거의 신빙성 탄핵,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장이 가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 진다. 사건 변호인이 법원에 의해 지정되는 국선변호사건의 대부분은 유죄, 항소기각, 상고기각이 되지만,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인정 즉 증언의 신빙성 탄핵과 함께 양형부당 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실제 의뢰인을 상담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경험은 변호사 실무에 있어 핵심이 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이 모의기록 연습과 현장연수를 통해 실제 살아있는 사건기록과 유사한 조제기록들을 읽는 것은 기초적인 변호사 역량강화에 필수적이다. 다만, 현장연수가 아닌, 모의기록 연습에서는 조제된 기록을 사용하게 됨으로 현장성이 떨어지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연수: 9-10월 실시

현장연수는 9-10월에 8주간 실시되고, 관리지도관 1명당 1명의 연수변호사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통상 관리지도관 1명이 책임자로서 동료 변호사 숫자만큼 연수변호사 숫자를 1:1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 33학점 중 30학점 이상, 수료식 참석 1학점을 필수로 이

수하는 것을 이수조건으로 한다. 연수변호사는 1주당 4학점을 이수하고, 1주당 2개의 과제물을 제출하며, 검토위원의 검토를 거쳐 학점이 인정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11월에 개업과 동시에 실무에 투입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현장연수이다. 실제 살아있는 소송기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종래 사법연수원 2년차가 검찰시보, 법원시보, 변호사 등 정부기관 실무를 해 온 것도 실무연수를 통해 실제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고, 의뢰인을 만나 상담하고 실제 기록을 검토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에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일부는 학기 외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검찰실무수습, 법원실무수습, 법무법인 실무수습을 경험해왔다. 현재의 변협 현장연수는 수습지도관인 변호사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어 법원, 검찰 등 유관기관의 연수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과거 사법연수원생은 검찰시보, 법원시보로서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이 인정되어 있었던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생은 기관연수의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 첫째,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등을 통한 일괄 연수,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4년으로 확대하여 실무연수를 교육기관에서 이수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법연수원이 연수를 책임지고 있고, 미국은 로스쿨 방학기간 동안 법무법인 연수 등을 통해 취업이 확정되는 등 3년의 교육기간 내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가 필요하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일몰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금액이 삭감되다가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관행이 2019년에는 깨져서, 일체의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해서 2020년부터는 변호사협회의 회비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일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회복된 바 있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각종 정부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비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정부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기관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검찰, 법원 및 유관기관에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연수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검찰시보, 법원시보의 법령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법무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법상 예산지원 근거가 있음을 근거로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9월 5일(월)부터 9월 9일(금)까지 로스쿨 입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결원충원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결원충원제도에 대한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준비생 대상 설문조사 주요 결과

설문조사 취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법률에 의거 전국 25개교 (40~150명) 총 2,000명의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해당 로스쿨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충원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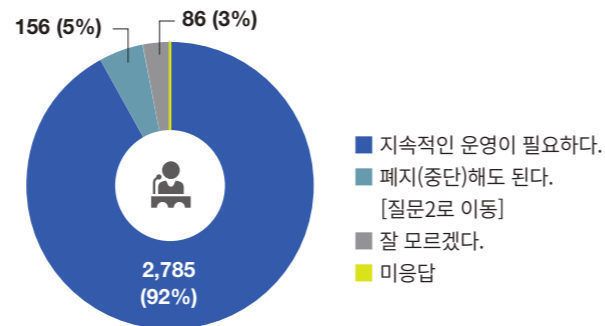
지난 수년간 로스쿨의 입학전형은 전 과정에 거쳐 공정성과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결원충원제도는 결원 인원에 대해 로스쿨 입학전형의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충원함으로써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입학 기회의 확대 효과, 학교 입장에서 선발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결원충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로스쿨 입학생 총인원이 늘어나서 변호사 배출 수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며, 결원충원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가. **설문일정:** 2022. 9. 5.(월) ~ 9. 9.(금) (5일간 진행)
- 나. **설문방식:** 구글 설문조사 활용
- 다. **설문대상:**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자
- 라. **표본수:** 설문조사 응답자 (3,032명)
- 마. **설문구성:** 객관식 11문항과 주관식 1문항으로 구성
- 바. **실사기관:** 로스쿨협의회

1. 귀하는 로스쿨의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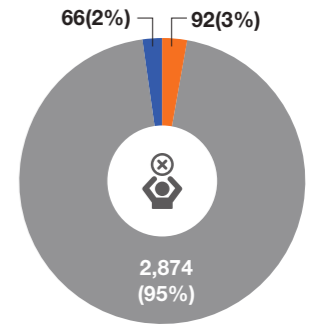


▶ 로스쿨의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92%(2,785명)의 압도적인 반면, '결원충원제도'를 폐지(중단)해도 된다는 답변은 5%(156명)에 그쳤다.

2. 대한변협 등의 주장처럼 동 제도를 통해 변호사 배출인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폐지(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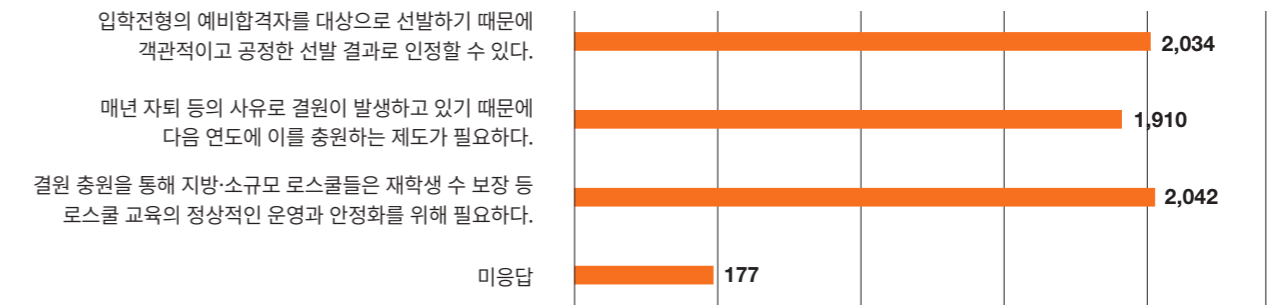
- 예
- 아니오
- 미응답

▶ 직전 문항에서 로스쿨의 '결원충원제도'를 폐지(중단)해도 된다는 답변을 했던 응답자들 (158명) 가운데 대한변협 등의 주장처럼 동 제도를 통해 변호사 배출인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폐지(중단)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66명(2%), 다른 이유로 폐지(중단)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92명(3%)에 그쳤다. 응답하지 않은 2874명(95%)은 로스쿨 결원충원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답변을 하였다.



3. 로스쿨의 '결원충원제도'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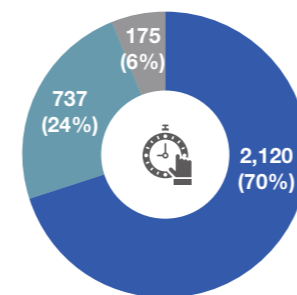


▶ 로스쿨의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해야한다고 답변했던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입학전형의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결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매년 자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이를 충원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결원 충원을 통해 지방·소규모 로스쿨들은 재학생 수 보장 등 로스쿨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현행 '로스쿨의 결원충원제도'는 법률 시행령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원 충원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시행령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가 필요하다.
- 현행처럼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운영해도 충분하다.
- 미응답

▶ 법률시행령의 부칙에서 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70%(2120명)은 결원 충원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시행령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24%(737명)은 현행처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결원충원제도 유지 필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 결원충원제도 유지 필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충원제도의 법 시행령 규정입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 제8조(로스쿨의 입학정원) 제3항 및 부칙 규정
 - 로스쿨 신입생 미충원 및 재학생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충원할 수 있음. 다만,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만 유효
 - ※ (구직 연차) 1차 '10~'13학년도(4년), 2차 '14~'16학년도(3년), 3차 '17~'20학년도(4년), 4차 '21~'23학년도(3년)

2 로스쿨 결원충원제도는 교육기관의 로스쿨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로스쿨 간 편입학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위권 로스쿨로의 연차 이동에 의한 로스쿨 제도 황폐화 방지
-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입학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로스쿨의 재정손실을 예방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불안정이 해소됩니다.
 - 결원 미충원 시 예상되는 전체 로스쿨의 연간 재정 손실액 약 6억7천만 원, 개별 로스쿨로 보며 연간 평균 2억 6,600만 원 재정손실이 발생합니다.



- 로스쿨 제도의 핵심인 특별전형, 지방인재 선발 제도 인척이 가능해집니다.
 - 2년(19~22) 동안 취약계층이 특별전형으로 1,958명이, 8년(15~22) 동안 지방인재전형으로 13,465명이 입학하였습니다.

3 결원충원제도 시행 중에도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 대한변협 측은 결원충원제도가 시행으로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학하게 되어 변호사가 과다 배출된다고 주장합니다.
 -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각 로스쿨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만 선발합니다.
 - 따라서 10% 초과 인원은 충원하지 않습니다.
- 2022년 결원충원 현황
 - 미충원 인원 39명 발생 : 입학정원 2,000명의 약 2%



- 최근 5년간 결원충원 현황(19~22)
 - 실제로 최근 5년간 입학정원 10,000명 중 162명이 미충원되었습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결원	124	163	167	147	181	802
충원	106	136	130	126	162	126
미충원	18	47	37	21	39	162

(단위: 명)

* 장년도 발생 경우

2018년 이후로 최근 5년간 802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5년간의 총 입학정원인 **10,000명** 중 **162명**이 미충원되었습니다(1.62%).

4 결원충원제도가 변호사 숫자 증가원인이라는 변협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 대한변협 측은 결원충원제도가 변호사 숫자를 증가시켜 법률시장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개인 변호사에게 저가 수입 압박,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곤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 사실과 다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결원충원 인원수와 상관없습니다.
 - 로스쿨 설립 후,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논의로 결정됩니다.
 -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현재까지 총 응시자 27,580명 대비 합격자는 15,049명(55%) 수준으로 결원충원제도가 변호사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타 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자격시험인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 매년 응시자 대비 96%가 합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대한변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이례는 결원시 의과과 아닌 의과과에서 의무연임력이 가능함

(최근 5년 의사국가시험·변호사시험 응시자·합격자·합격률 비교)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의사 국가 시험	응시자	3,373	3,307	3,210	3,294	6,043
	합격자	3,204	3,115	3,025	3,412	6,756
	합격률	94.99%	94.19%	94.24%	102.82%	95.75%
변호사 시험	응시자	3,240	3,330	3,316	3,156	3,197
	합격자	1,500	1,681	1,768	1,706	1,755
	합격률	46.35%	50.78%	53.32%	54.06%	55.55%

* 공공의에 관계로 응시자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여 2021년 응시자는 응시자 수 제외한 합격자 수만 반영(2022년에 반영됨)

- 대한변협은 법조인의 직업 수호·확대 및 유사직역 통제, 진출영역 확대 등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작 리플렛

5 결원 충원을 위해 편입학 제도를 시행하면 로스쿨 제도의 파탄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소규모 → 대규모 로스쿨로 편입할 경우, 하위 5개 소규모 로스쿨 중 4개 교는 재적학생이 사라지며, 1개 로스쿨은 정원 절반가량의 학생만이 재적하게 됩니다.



대학명	입학 정원	결원 CBT의 상대 수	편입 전 재적인원 (21)	편입 인원 (50)	편입 후 재적인원 (29)	충원 여부
A대	50	1	59	1	50	○
B대	20	2	118	2	20	○
C대	20	4	116	4	20	○
D대	20	12	108	12	20	○
E대	20	12	108	12	20	○
F대	20	13	107	13	20	○
G대	20	16	104	16	20	○
H대	100	14	86	14	100	○
I대	100	13	87	13	100	○
J대	100	4	96	4	100	○
K대	80	5	75	5	80	○
L대	80	6	74	6	80	○
M대	70	5	65	5	70	○
N대	70	8	64	8	70	○
O대	60	3	57	3	60	○
P대	60	3	57	3	60	○
Q대	50	17	33	17	50	○
R대	50	10	40	10	50	○
S대	50	7	43	7	50	○
T대	50	5	45	5	50	○
U대	50	12	38	12	29	X
V대	40	4	36	4	0	X
W대	40	2	38	2	0	X
X대	40	2	38	2	0	X
Y대	40	3	37	3	0	X
합계	2000	180	1819	0	1819	

6 결원충원제도를 유지하면, 편입학 부작용 예방 및 로스쿨 운영이 정상화됩니다.

■ 편입학 제도의 부작용

- 로스쿨법 제25조의2(편입학)에 따라 결원 발생 시 기존 로스쿨 학생만을 대상으로 편입학하게 됩니다.
- 편입학 제도가 운영될 경우:



■ 로스쿨 운영의 정상화

- 로스쿨법 시행령에서 결원충원제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난 8월 10일(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문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와 법전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법무부가 CBT 도입 추진을 확정하고 공론화함에 따라, 로스쿨 재학생 및 교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위한 첫걸음 공개 토론회 현장

※ CBT란? Computer-based Test의 약자로 컴퓨터를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을 뜻한다.



주제발표

이준호 과장(법무부 법조인력과)

(검토 배경) 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장시간 수기(手記) 답안 작성에 따른 손목 등 육체적 피로, 답안 작성·수정의 불편, 채점상의 불이익 등을 호소한다. 답안 내용이 아닌 필체(약필)로 인한 불이익의 우려가 있으며, 시험위원들 또한 필체(약필)로 인한 채점의 곤란함과 공정한 배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② IT기술의 발달과 국민들의 컴퓨터 활용도 증가, 업무 효율성, 자원 절약 등을 고려했을 때 CBT 방식에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의사·간호사, 산업기사 등 많은 국가시험이 CBT로 전환 또는 전환 예정이며, 미국 주요 주(州)는 약 20년 전부터 변호사시험을 CBT로 시행하고 있다.



(도입예정시기) 법무부는 2024년 1월경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 방식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응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정에 따라 구체적 시행 일정은 변경 가능성이 있다.

토론



정승환 원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노트북 제공 방식)** 응시자 간의 형평성과 안정적인 시험 운영,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노트북은 국가가 일괄 공급하고, 답안지는 초기엔 출력하되 장기적으로는 파일 제출해야 한다.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면 매 시험마다 시스템 및 부정행위 위해요소 등을 일일이 검사해야 한다.
- **(수기방식 병행 여부)** 병행 없이 CBT로의 전면 시행을 하되, 자판을 통해 답안 작성 시간을 줄이고 그 여분의 시간을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에 할애하도록 해야 한다.



이경주 원장(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CBT도입의 필요성)** 컴퓨터로 작성하면 수기로 작성했을 때보다 2.3배가량 더 많이 쓸 수 있어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데 확연히 유리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 사례형에서도 논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 **(수기방식 병행 여부)** 미국의 경우 CBT와 수기방식을 병행하기도 하나 이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다. 우리의 경우 병행을 하게 되면 혼란만 커지게 될 것이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장석천 원장(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CBT도입의 필요성)** 21세기 인재를 뽑는데 선발 방법은 조선시대 방식이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CBT를 도입해야 한다.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는 것이므로 재학생의 입장에서 의문점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 **(CBT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 CBT로 전환하면 문제지 출력, 복사 등 운영비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분명 발생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인 운영비에서 충당하면 될 것이다.



김민규 교육이사(대한변호사협회)

- **(수기방식 병행 여부)** 고령 수험생을 위해서 첫해라도 수기방식과 병행을 하면 좋겠다. 다만, 시험시간은 수기방식이나 CBT 방식이나 동일해야 형평성이 맞는다.
- **(노트북 제공 방식)** 법무부가 노트북을 임차하든 구매해서 공급하든,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시현 학생대표(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노트북 제공 방식)** 응시시간 형평성 문제, 부정행위 방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무부가 응시자들에게 노트북을 일괄 제공해야 한다.
- **(재학생들의 의견)** ①CBT 시험 도중 갑자기 노트북이 작동하지 않는 장애에 대하여 시험시간을 온전히 보전하는 등의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학생, 채점 교수, 운영자 모두에게 CBT 방식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모의시험을 거쳐야 한다. 3회 모의시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교시험(중간, 기말)뿐만 아니라 협의회 모의시험, 법조윤리시험에서도 CBT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학교별로 도입 속도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회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토론



황인규 변호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개발센터/리걸클리닉)

- **(예산 및 시일 확보)** 1년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3,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3,000대 이상의 노트북이 필요하다. 한 대당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요 예산만 30억이다. 또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모의 시험만을 위한 공간(전산실 등)을 학교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법무부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험생들은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 다운받아 활용하는 방식이 좋겠다.
- **(2년 이상 유예)** 만약 1개 학교라도 시행하지 못하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면 좋겠다.

임태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수기방식 병행 여부)** 수험생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CBT방식과 수기방식이 병행되어서는 안 된다. 현 재학생 중에는 수기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 **(신속한 공지)** 변호사시험에서 실력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응시 기법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제도가 변경될 시에는 명확하고 신속하게 공지해주면 좋겠다.

이현우(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충분한 테스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하다. 만약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입이 된다면, 이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텐데 당장 시행 가능한지 모르겠다. 현 재학생 중에 CBT를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 신입생인 15기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



이 외에도 “수기에서는 나이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지만 CBT 방식에서는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 2학년에게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객관식 시험에도 도입되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로스쿨 재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서울 지역을 비롯하여 지방 권역에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전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CBT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2.09.05. 법무부 CBT 간담회(서울 권역)



2022.09.06. 법무부 CBT 간담회(지방 권역)

변시 앞둔 수험생,

수기기험 대비에 손목질환 주의보



곧 2023년도 변호사시험의 접수가 시작된다. 인생의 중대 기로에 서있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점점 커질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도 한의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빠른 손목을 털어가며 노트에 필기를 이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닷새간(1일 휴식 포함) 수기로 답안 작성이 진행되는 것으로 유명한 변호사시험의 수험생이라면 조급한 마음 못지 않게 공부하는 손도 바빠 움직이고 있을 터다.

그러나 이처럼 반복적으로 필기하는 행동은 자칫 손목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육의 과도한 사용은 언제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손목은 인체의 여러 부위 가운데서도 가장 운동성이 뛰어난 관절로, 손을 상하좌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만큼 구조도 복잡하며 손상이 심할 경우 치료가 까다롭다.

손목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다발하는 손목 질환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을 꼽을 수 있다. 손목 안에는 뼈와 인대로 둘러싸인 손목터널(수근관)이 있다. 이 손목터널을 통해 손과 손가락의 감각 및 움직임을 관장하는 정중신경이 지나간다. 그러나 잦은 손목 사용으로 손과 손목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다 보면 주변 근육이 뭉치고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서 손목터널이 좁아져 정중신경을 압박한다. 이로써 생기는 다양한 증상을 일컬어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는 펜, 마우스 등을 오래 사용하는 직군 종사자들에게 빈번히 발생한다.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와 함께 앉아서 일하는 업무의 직

손목터널증후군을 방지할 경우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거나 마비가 올 수 있으므로 최근 손목에 이상 증상이 이어졌다면 전문가를 찾아 치료에 나서야 한다. 오래 모든 질환이 그러하듯 손목터널증후군도 초기에 발견한다면 간단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한의학에서는 손목터널증후군을 혈과 기가 막혀 통증을 일으키는 ‘비증(痺證)’의 일종으로 보고 손목 주변 소통이 원활하도록 약침, 침, 한약 등 치료를 실시한다. 우선 정제된 한약재를 약침 형태로 손목에 놓아 염증을 제거하고 침으로 합곡혈, 열결혈 등을 자극해 긴장을 풀어준다. 이후 빼와 근육,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한약을 처방해 치료효과를 더욱 높인다. 추가적으로 한의사가 직접 틀어진 신체 부위를 바로잡는推拿요법은 손목 부위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

특히 침치료의 객관적인 손목터널증후군 치료 효능은 국내·외 의학계에 널리 소개된 바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이 2017년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침치료가 손목터널증후군 통증 완화 및 신경 재생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환자 79명을 침 치료군과 모조침 치료군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8주간 치료를 실시하고 3개월 이후 보스턴 손목터널증후군 설문조사(BCTQ)를 통해 통증을 평가한 결과, 침 치료군은 증상 정도가 25.1% 감소한 반면 모조침 치료군은 11.1%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한 치료 전후 정중신경의 전달속도를 특정한 결과에서도 침치료가 좋은 결과를 보였다. 침 치료군의 경우 치료 전에 비해 감각신경 잠복기(지연속도)가 평균 0.16ms 감소했지만 모조침 치료군은 오히려 0.12ms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손목터널증후군은 평소 습관이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손

목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지만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다른 방법을 추천하고자 한다.

첫 번째가 스트레칭이다. 평소 스트레칭만 잘해도 손목터널증후군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스트레칭이 ‘손목 당기기’다. 손끝을 아래로 향하게 한 쪽 팔을 뻗는다. 반대편 손으로 뻗은 손 끝을 잡고 몸 안 쪽 방향으로 15초간 당겨준다. 이후 손을 바꿔 동일하게 실시한다. 동작이 간단하고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수시로 실천할 수 있다. 이외에 주먹을 가볍게 쥐고 손목을 안팎으로 10~15회 돌려주는 동작도 손목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좋다.

두 번째는 휴식이다. 되도록 1시간에 한 번씩은 5~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온수나 핫팩으로 손목을 감싸 주먹을 쥐었다 폄다를 반복하면 손목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 수 있다. 손목보조기나 밴드를 착용하는 것도 손목 관절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알맞다.

마지막으로 급작스럽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지압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손목주름의 중앙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손가락 3개 너비에 위치한 ‘내관혈’은 신경계, 소화계통 개선에 효능이 있는 혈자리로, 반대쪽 손 엄지로 부드럽게 5~6번 가량 눌러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내관혈은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두통 완화에도 효과가 좋다.

손목터널증후군을 비롯한 손목 질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현듯 찾아온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손목 저림과 통증 등 증상을 겪으면서도 이를 방치하며 질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에 소홀하면 부정적인 시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환절기를 맞아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박원상
광화문자생한방병원 병원장 / 한의학 박사

-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 자생 추나요법 교육위원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회원
-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팀닥터 프로그램 수료
- 前 부천자생, 창원자생한방병원 병원장, 강남자생한방병원 진료/의무원장 역임
- 前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육위원, 대의원 역임
- 前 대한한의학회 평의원, 학술위원 역임
- 前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팀닥터 역임

로스쿨창 x 법대가리

변시 응원만화

변호사시험이 이제 100일도 안남았는데...

객관식 지문들은 돌아서면 까먹고...

내가 이 판례를 봤던가...?

아이고! 아까 틀렸던 문제잖아요!

이 과목 공부하면 저 과목 까먹고 저기 공부하면 여기 까먹고...

POP! POP! POP!

기분 POP! 어수 POP!

하하! 까먹었쥬? 하하! 포기했쥬?

하하! 땀뽀쥬? 하하! 포기했쥬?

부들 부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집니다.

물상

썩...

썩...

뭐 남는 게 있긴 하는 건가...

그래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후...

우리 한번 남은 기간 미친듯이 들이부어 봅시다.

미친듯이 붓고 때려 넣어서

끼요웃

썩!

썩!

가장 찡찡 찡찡할 때...

준비됐지?

씨익

찰랑~ 찡랑~

오케이!!!

변시날 그 동안 때려넣었던 것들 전부 쏟아냅니다.

가즈아!

3년간 공부한 거

썩!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왜 제일 빠른지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도

뭔가 이상하지만 멋있어... 혹시 조건설을 지지하나?

아무튼 우리도 체력관리, 멘탈관리 잘 하고, 끝까지 가봅시다!

화이팅!

법대가리: 로스쿨 12기로 인스타그램(@law_head_)에서 '로스쿨 생활툰'과 '리트 도전 만화'를 연재하고 있다.

<동물에게 다정한 법>



인간의 언어로 동물을 변호합니다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604만 가구 1,448만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29.7%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과 동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은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민법상 동물은 아직까지 '물건'에 불과하지만, 한편으로 동물보호법을 두어 일정 부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또,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처럼 동물은 우리 법에서 아직까지 애매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렇기에 동물들의 고통과 아픔에 우리 법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동물들을 대변해 인간 중심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들이 있다. 10명이 조금 넘는 변호사들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약칭 '동변')이라는 모임으로 뭉쳐 동물을 변호한다. 2014년 만들어진 이 모임은 인원은 적지만 그동안 동물권 단체들과 함께 동물들에게 중요한 사건을 여럿 수행하며 동물들의 법정 투쟁을 도왔다.



"다정이라는 것은 상대를 차별해 가며 품거나 전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다." **백준서변**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비인간 인격'으로 인정받는 세상으로 이 책이 모두를 데려가 주리라 믿는다." **김금희 소설가**

<동물에게 다정한 법>은 동변이 그동안 활동한 내용 중 11개의 주제를 뽑아 10명의 동변 소속 변호사들이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책은 어렵지 않게 읽히지만, 담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동물들이 겪는 고통, 그에 비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 외국의 사례, 제도 개선 방향까지 동물 관련 법이나 제도에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거의 담고 있기 때문이다. 책은 개 등 반려동물로 익숙한 동물뿐 아니라 꽃마차에 동원되는 말, 축제라는 이름으로 학대당하는 산천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등 다양한 동물의 이야기를 다룬다.

책에서 다루는 몇 가지 주제들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마차를 들여다 보자. 아마도 우리는 요란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말을 집중해서 본 적은 별로 없을 것이다. 관광지에서의 하나의 풍경으로 여겨질 뿐이기에 말의 눈물을 볼 생각을 별로 안했을 것이다. 꽃마차의 말은 운행 중 대소변을 보면 안 돼 종일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게다가 조명과 음악 등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말은 결국 돌발행동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말의 복지를 위해 마차 운행을 금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요원하다.

물살이들은 어떨까. 강원도 화천군이 매년 개최하는 산천어 축제는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 모으는 인기 있는 축제다. 그런데 여기에 동원되는 산천어들은 이미 이동과정에서부터 학대를 당한다. 강원도 영동 지역 하천에서 주로 서식하는 산천어들은 이 축제를 위해 화천군으로 강제로 옮겨진다. 매년 최대 200톤의 산천어가 동원되는데, 이동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기절하거나 토하거나 굶기야 죽는 경우도 있다. 살아남아 축제에 도착하더라도 이미 인간의 유희를 위한 축제이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동변은 동물권 단체들과 산천어 축제 주최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했으나, 검찰은 동물보호법상 산천어는 '식용'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혐의 없음 판단을 했다.

책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언급되기도 했던 수족관에서 고통받는 돌고래의 이야기도 다룬다. 동변은 돌고래 쇼를 운영하고 사람들이 돌고래를 직접 만질 수





아니라고 했다. 다행히 대법원은 '잔인성'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이야기하며, 결국 개를 전기쇼크충으로 도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충실히 심리하여 잔인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책은 이외에도 실험동물, 애니멀 호더, 동물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동물판 N번방 등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읽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동물의 세계를 알게 되고, 이로써 우리의 시야 또한 확장될 것이다. 동물들의 자세한 이야기, 특히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면,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읽어보면 좋겠다.

있게 하는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자들을 고발했으나 역시나 결과는 '무혐의'였다.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개 전기도살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동물학대로 인정한 사안이 그렇다. 개농장 운영자들은 대체로 개들을 영성하게 만든 전기 쇼크충을 개들 입에 물리는 방식으로 죽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법원에서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동물학대로 보고 있어, 위와 같은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1심과 2심에서는 동물학대가



김소리 변호사

現 바른책방 운영
現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前 법률사무소 이공 변호사
前 박주민 국회의원실 비서관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창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 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대리 02)752-2037

NFT의 높?

우정 NFT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NFT클레이팅 디지털아트팀장이 현장에서 겪는
실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NFT의 높이란?〉

현장에서 NFT라고도 하죠. 요즘 NFT,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token)” 다 알고 있는 것, 대체 불가능한 블록체인 주소로 그림도 주고 받는 영수증화, 소유증화 된다는 그것을 저는 예술클레이터로 쉽고 재밌게, 작가들의 표현을 빌려 “NFI(Non fugible Identity)”, 대체 불가능한 정체성! 내지 세계관이라는 NFT이용 아티스트의 말에 공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구글이나 네이버에 너무나 많은 NFT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조금 쉽고 재밌게 NFT 디지털아트 관점에서, 문화예술로 접근하는 NFT아트 중심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NFT는 머니? VS 예술?

결국은 커뮤니티

우리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고 생을 맞이하며, 애정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 갔지요! NFT도 잘못된 서적의 정보와 오류가 많은 인터넷 글 만으로 접근하면, 자칫 소유 증명서 또는 영수증에 불과하다, 사기다! 이런 말들에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2022년 초기부터, 20년의 예술계 매니지먼트, 학예사, 큐레이터, 문화기획자로 예술과 호흡했던 저는, 문화예술적 관점으로 메타버스가 재밌었고, 그 메타버스의 미래 속에 NFT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출발했었습니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디지털 아트NFT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미디어아티스트협회장의 깊은 작품들로, 그리고 NFT커뮤니티계의 슈퍼레이와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면서, 예술과 산업을 조율해가야 했습니다. 디지털 예술의 시장성이었죠.

웬걸요. 코인이나 크립토생태계의 가상화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한 저 자신에게 많은 현타가 왔었지요. 코인을 해본 적 없었고, 이더리움, 폴리곤, 클레이라는 가상화폐와 거래소의 생리를 모른채로, NFT아트가 아트러니, 미디어나 디지털장르의 무빙이미지를 잘 활용하면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다보니, 벽 여기저기에 부딪히는 중고 자전거 같은 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혼란이 온 적 있었습니다. 잘못 시작한건가? NFT재밌고 핫할 줄 알았는데, 지난 봄에 루나코인 사태로 시장의 정체기가 왔고, 접근 방법이 너무나 다양한 이 블록체인 세계 속에서 문화예술인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순간순간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래도, 열정으로 2002년부터 달려온 큐레이터의 본성이 있지요. 열심히 서치하고 인연을 만들고 감을 믿고 촉을 믿어보면서 인연을 소중히 하면서 고퀄리티 디지털 아티스트들을 섭외해서 지금은 고급 아트NFT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손정화 큐레이터

현) 비블록 nft디지털아트 팀장
어바웃아트 예술기획사 대표
정3급학예사
경의선 문학 수필가
<https://linktr.ee/soncurator>

행스럽게 민지의 아트피플! 그녀도 만났지요. 그녀와의 대화에서도 살아있는 비타민 수혈을 받는 느낌입니다.

“여기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말! “블록체인은 하트체인”이라는 말, 이음작가와 민지 커뮤니티의 만남들을 통해서 6월부터 이더리움과 오픈씨 연동으로 N승의 확장성과 커뮤니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지요. 블록체인 씬에서 커뮤니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블록체인은 죽고, NFT씬에 기존 미디어 작가나 파인아트 작가들이 그 장벽을 넘기 어려워하면서도, 또한 NFT에 접근성이 용이했던 IT출신 작가들이나 디지털아티스트에겐 엄청 큰 기회가 온 것이죠.

NFT의 종류

NFT는 성격에 따라 수집형, 서술형, 메타버스형, 게임형, 디파이(Defi)형이 있으며 거래량과 거래액은 수집형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지만, 접근하기에는, 디지털 아트가 개인 작가들과 소통하면서 거래소에서 민팅을 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큐레이팅 서비스가 동반되었다면 꽤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예술 기획자 관점의 NFT에 대한

발칙한 상상

예전에 만화애니메이션 먹개비 캐스퍼나 메트릭스는 몸이 유동적이라 여기저기 스며들고 공간 시간 이동이 자유로웠죠. NFT아트는 그런면에서 그전의 미디어 아트가 갤러리나 미술관 미디어파사드에 국한되었다면, 어느 곳에도 기업, 상업공간, 합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대상으로, 객체가 되기도 하고 주체가 되기도하면서 사람들과 문화의 영역으로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구요. 지금 돈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스러워, 시장이 경직되다보니 너도 나도 그만두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문을 닫는 플랫폼들도 속출하고 있지만, 그것을 돈으로만 바라보았기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사라진 것 아닐까요? NFT는 대체불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과 공존하는 하나의 문화와 세대의 개념으로 필자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파인아트와 NFT아티스트의 차이점에 대해 실물 공간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느껴보게 됩니다.

NFT라는 문화영역이 생겨남으로써 대기업이나

대형카페들은 sns를 n차원으로 파생시킬 수 있는 NFT 아티스트들에게 전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아트나 영상작업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생긴것이지요. 미대를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전공에서도 NFT코인의 생리만 조금 이해하고 오픈씨 발행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스타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역으로 실력 있는 파인아트계 미디어 작가들의 NFT로의 진입은 코인의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니저나 에이전시가 없는 한 스스로 매달리기는 힘든 현실이지만 그래서 새로운 직업선, 커뮤니케이터들이 등장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필자인 큐레이터는 양쪽 아티스트들을 모두 기획하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알고 있으나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한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문화예술계는 메타버스 NFT로 인해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미래지향적인 속도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전하는 문화로서 NFT를 이해하면 건강한 코인생태계 속에서, 좀 더 미래적이고 추천할 만한 미래의 예술거래뿐 아니라 스포츠 아이콘, 부동산 게임 등의 다양한 거래들이 활성화되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NFT를 바라보는 관점

기술로 보는 관점, 돈으로 보는 관점, 아트로 보는 관점,
그리고 파인아트와 NFT아트를 구분하는 접점

이렇게 4가지를 아는 사람, 그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의 중요성,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지요. 금융감독당국은 NFT의 다양한 형태별로 게임아이템, NFT아트, 증권형 NFT, 결제수단용 NFT, 실무형 NFT로 구분하고 지급수단, 투자수단 또는 자금조달수단과 같은 경제적 기능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은 NFT의 개념이나 NFT마켓의 변화와 추이를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어요.

IT 회사원에서 NFT 전업 작가가 된 ‘레이레이’, 예술클레이터가 변호사가 되었다가 지금은 경찰청 소속에서 형법과 NFT 스캠 범죄자 사이버수사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김별다비 경정 등, 이 분야에는 다양한 관점의 애정과 열정적인 학습과 도전들이 있기에 생기가 있고 활활 불타는 도약의 토대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앞으로도 시장현황, NFT법적 쟁점, NFT부작용, 해킹사례는 시시각각 많은 정보로 누적될 겁니다.

NFT의 전망에 대한 큐레이터로서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7배속으로 더 재미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방대한 지식보다는 리얼한 감동이 있는 NFT문화를 꿈꿔보며 짧은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63차 총회 개최



지난 9월 30일(금) 법전문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3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법전문원협의회 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고, 인하대 이경주 원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후임 원장인 정영진 원장이 신임 임원으로 선임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법전문원협의회 신임 이사장 선임안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원장이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2년이다. 이 외에도 기타 안건으로 로스쿨 현안 사안들이 논의되었으며,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023년도 법전문원 취약계층 장학금 정부 예산 증액

25개 법전문원 원장단과 법전문원협의회는 취약계층 장학금 확보를 위해 교육부, 기재부 등에 예산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23년도 법전문원 취약계층 장학금 정부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6억 증액된 71.9억 원으로 심의되었다. 기재부는 당초 2022년도 지원액인 65.9억 원으로 1차 심의하였으나, 2차 심의에서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 심의에서는 6억 원 증액한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되었다. 2023년도 법전문원 취약계층 장학금액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이사장 선출



제11대 이사장으로 이상경 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출

이상경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행정법)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헌법 전공)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학위(LL.M., J.D., J.S.D.)를 받았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사법연수원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24일(수) 법전문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법전문원협의회와 사법연수원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법전문원협의회 측에서는 임원 10인과 김명기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사법연수원 측에서는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성식 수석교수 외 8인의 교수가 참석했다. 사법연수원과 법전문원협의회는



학사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과 재판실무과목 운영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사법연수원 교수들의 출강 시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 법전문원협의회 측 참석 임원: 한기정 교수(서울대, 전 이사장), 문병호 원장(강원대), 정승환 원장(고려대), 송관호 원장(동아대), 이상경 원장(서울시립대), 권건보 원장(아주대), 박동진 원장(연세대), 이경주 원장(인하대), 정훈 원장(전남대), 전학선 원장(한국외대)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험 전 검토회의 개최



9월 16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법전문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험 전 검토회의가 진행됐다. 최종 검토회의는 사전에 출제된 모의시험 문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총 36명의 교수진이 참여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교수진은 문항의 오류 방지 및 질 제고를 위해 출제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제3차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은 오는 10월 14일(금)부터 10월 18일(화)까지 시행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 취임



정영진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진 원장은 상법 전문가로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대륙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활약하였다. 정영진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8월 31일까지이다.



2022년 제2회 울촌 기초법학 논문상

• 공모 논문:

- 기초법학(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개인 단독저술 연구논문
- 출판되지 않은 신규 작성 논문(전문석사학위 논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실적심사물 응모 가능)

• 응모 자격: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휴학생, 연구생 포함)

• 시상 및 상금:

- 대상: 1편(상금 300만 원)
- 우수상: 2편(상금 100만 원)

• 제출 양식:

- 서울법대 홈페이지(law.snu.ac.kr) 일반게시판 공고문의 '모집요강' 참고
- 법이론 연구센터 이메일 제출(legaltheory@naver.com)

• 공모 일정:

- 참가 신청 및 논문 제출 기간: 22.11.14.(월) ~ 11.30.(수)
- 심사 결과 발표: 12월 중(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연락)
- 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 2023년 1월 말 예정

•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센터(02-880-8684)

OUT CAMPUS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 시험 기간: 2023. 1. 10.(화)~1. 14.(토) ※ 2023. 1. 12.(목)은 휴식일
- 시험 과목: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원서 접수: 2022. 10. 19.(수) 09:00~10. 25.(화) 18:00
- 접수 방법: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200,000원
- 합격자 발표: 2023. 4. 21.(금)

QUIZ

1 X사립대학교 교원 甲은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X학교법으로부터 해임통지를 받았다. Y국립대학교 교원 乙은 뇌물수수혐의로 Y국립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파면통지를 받았다. 甲과 乙은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 ① 甲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해임결정을 정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위원회의 이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기속력을 갖는다. | ④ 乙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경우, Y국립대학교 총장은 위원회를 상대로 인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② 甲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경우, X학교법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⑤ 甲과 乙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경우, 甲과 乙은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 ③ 乙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乙은 Y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 |

2 추운 겨울 도로변에 주차하여 둔 甲의 차에 노숙자인 乙이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甲이 항의하자 乙은 “뭘 훔쳐가려는 것도 아닌데 추운 날씨에 잠시 잠도 못 자느냐, 노숙자라고 무시하냐?”고 화를 내며 甲의 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렸다. 이에 격분한 甲이 乙의 행동을 저지하며 체포하는 과정에서 乙의 목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
|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甲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이다. | ④ 乙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잔 행위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한다. |
| ② 乙이 甲의 자동차를 찌그러뜨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⑤ 甲이 乙을 체포함에 있어서 목살을 잡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강제력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③ 현행범체포는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반드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3 변호사 甲은 딜러사 乙로부터 외제차 한 대를 신차로 구입하였는데, 인도받은 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1개월 이후부터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이상(계기판 전체의 교체로 쉽게 고쳐질 수 있음)을 보였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는 당사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상의 매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 ㄴ. 甲이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위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 ㄷ. 甲이 만약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이 청구권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모두에 걸린다.
- ㄹ. 甲이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의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